

실천공동체를 통한 평생학습 차원의 청년 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질적 사례 연구

컴패스 멘토링단

연구책임 | 강수민 (광운대학교 교수학습센터 초빙교수)

공동연구 | 강수현 (서울송정초등학교 교사)

장정원 (㈜글로벌포인트 서비스기획실 주임)



경기복지재단
경기청년지원사업단

요약

□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 A 멘토링단의 사례를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로 정의하고, 평생학습의 관점에서 이 경험을 통한 청년의 정체성 재정립 가능성을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탐색
- 청년들이 자발적·주도적으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소통하는 사례를 분석하여 교육 분야의 사회 참여 활동이 청년에게 주는 의미를 확인
- 기존 교육 분야의 청년 지원 정책이 구직과 취직을 위한 목적성 지원을 벗어나 ‘청년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의 주기를 알아보고 대비하는 ‘청년에 관한’ 교육, 청년의 경험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청년에 의한’ 교육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
- 이에 본 연구는 연구 문제로 ‘A 멘토링단 사례를 통해 본 청년들의 실천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은 무엇인가?’, ‘A 멘토링단 사례에서 이루어진 실천 경험에 따른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를 수립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함

□ 연구 방법

- 질적 사례 연구 방법에 기반한 세부 연구 절차를 수립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음. 첫째, 연구진 간 킥오프 미팅 후 문헌 분석과 학습을 통해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함. 둘째, 질적 자료 수집, 연구 자문, 질적 자료 정리 분석, 초안 작성 및 중간 보고,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최종 결과 도출 및 보고서 작성을 진행함

- 질적 사례 연구 중 단일 사례 연구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하나의 사례가 갖는 독특성에 주목하고자 A 멘토링단 사례를 정의함. A 멘토링단은 경기도 P 지역 신설 고등학교 졸업생 중심의 자발적 청년 실천공동체로 2012년부터 운영되어 왔음
-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 분석과 심층 면담을 진행함. 우선 문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와 관련한 기존 청년 지원 정책, 실천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 및 정책 분석에 관한 내용으로 정리함. 다음으로 심층 면담 진행을 위한 연구 참여자 명단을 구성하고 의도적 표집에 기반하여 8명을 선발함. 선발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 윤리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를 얻어 총 2회에 걸쳐 개별 심층 면담을 진행했으며, 그 결과로 A4 용지 기준 총 142장 분량의 자료를 확보함
- 수집한 질적 자료는 분석과 해석을 위해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을 활용함.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 단계를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로 수렴했으며, 연구 문제 해결을 위한 개방 코딩으로 총 91개의 의미 있는 값들을 선택함. 범주 확인 단계를 통해 최종적으로 범주화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결과를 서술함
- 연구 참여자 확인법, 동료 검토법, 삼각 검증법을 중심으로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활동을 수행했음. 또한, 본 연구 과제 진행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사업 담당 연구위원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 진행 전반의 과정에 관한 컨설팅 및 자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 진행사항을 보완해 나감

□ 연구 결과

- 첫째, A 멘토링단의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별 특징 및 도전 과제 도출을 위해 잡재기, 결합기, 성숙기, 관리기, 변형기로 구분하고, 각각에 대한 내용을 정리함
- 둘째, A 멘토링단 사례로부터 도출한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첫째, 자신에 대한 재인식 차원에서 청년은 실천공동체 참여 과정에서 개인의 내면 차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자극을 지각함. 둘째,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차원에서 지속적 참여를 통해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적 안목을 형성함. 셋째,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로서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다른 영역의 사회 활동으로의 참여 의지를 갖게 됨

□ 결론

- 교육 분야 청년 실천공동체 지원을 통한 정책적 이점 및 기대 효과로 다양한 연령대 청년과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 습득, 타인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진로 선택 및 진로 설계에 도움, 지역 기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서울 등으로 이주한 청년의 지역사회 관심 및 사회 참여도 증가를 들 수 있음
- 교육 분야 청년 실천공동체 지원을 통한 교육적 이점 및 기대 효과로 청년의 평생학습 기대,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한국 입시 및 취업 압박에 의한 교육의 부정적 정서 환기 및 긍정적 경험 제공, 청년 실천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청년 1인 가구의 관계 단절 극복을 들 수 있음
-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으로 첫째, 현행 행정안전부 지원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관련 개선 의견을 들 수 있음. 청년 인적 자원을 거주 지역 단위로 단절하는 것보다 지역에서 초·중·고를 졸업한 청년 인적 자원에 대해서도 문턱 낮추기, 31개 시·도 단위로 차이가 있는 청년 공간 활용에 대한 표준화 및 통일화된 온라인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함
- 둘째, 평생학습 차원의 교육 지원 4가지 유형을 정리함. 구체적으로 배움의 의미와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를 축으로 1)여가 관련 활동, 2)신체 및 정신을 위한 자기계발 활동, 3)취·창업 지원 활동, 4)사회 공헌 활동 지원으로 분류함
- 셋째, 청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단체 형성 단계별(잠재기-결합기-성숙기-관리기-변형기) 단체 운영의 도전 과제 분석, 이에 따른 맞춤형 정책적 지원 방향을 도출함
- 마지막으로, 후속 연구로 연구진은 청년들의 실천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련 영역과 관계 기관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하는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 개발

을 제안함. 이와 같은 후속 연구를 통해 본 연구의 연구 결과로 반복 강조한 하나의 청년 실천공동체가 형성되며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총체적으로 구조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임

목 차

Contents

I	서론 / 71	
	1. 연구 목적	71
	2. 연구 문제 및 기대 효과	73
II	이론적 배경 / 75	
	1. 실천공동체와 평생학습	75
	2. 청년 사회 활동과 정체성	80
III	관련 정책 분석 / 84	
	1. 청년 사회 활동 지원 정책 분석	84
	2. 청년 교육 분야 지원 현황 분석	87
IV	연구 방법 / 91	
	1. 연구 절차	91
	2. 사례 선정	92
	3. 자료 수집 방법	92
	4. 자료 분석 방법	95
	5.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방법	96
V	연구 결과 / 97	
	1. A 멘토링단 사례에서 드러난 실천공동체 형성 과정에서의 특징	97
	2. A 멘토링단 사례에서 이루어진 실천 경험에 따른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	113
VI	결론 / 138	
	1.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138
	2. 관련 정책 제언	142
	3. 후속 연구 제언	147
	참고문헌 / 148	
	부록 / 151	

표목차

Contents

〈표 1〉 정체성의 하위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	81
〈표 2〉 관련 정책 분석을 위해 참고한 문헌 목록	84
〈표 3〉 국가(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황	85
〈표 4〉 2021년 중앙부처 청년 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수(개) 및 예산(억 원)	87
〈표 5〉 연구 참여자 명단	92
〈표 6〉 1차 심층 면담 질문지 구성 내용	93
〈표 7〉 2차 심층 면담 질문지 구성 내용	94
〈표 8〉 A 멘토링단의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별 특징 및 도전 과제 범주화 결과	97
〈표 9〉 A 멘토링단 사례에서 도출한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 범주화 결과	113
〈표 10〉 A 멘토링단의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별 도전 과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향	146

그림목차

Contents

[그림 1] 실천공동체의 발전 단계	77
[그림 2]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88
[그림 3] 연구 절차	91
[그림 4] 교육 분야 청년 실천공동체 지원을 통한 이점 및 기대 효과, 방향성	142
[그림 5] 청년 교육 지원 체계 유형화	145

I

서론

1. 연구 목적

우리 사회에서 청년은 불완전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계속 배우거나 자격을 갖춰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코로나19 상황 속 경제와 노동시장 위축으로 청년 취업난이 심화되며 더욱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21)의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청년 29.9%가 실업을 경험했으며 노동시간의 감소나 임금 삭감, 임금 연체, 미지급 등의 부정적 경험을 한 가지 이상 겪은 청년은 절반에 가까웠다(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1). 이에 따라 최근 많은 지역 기관들은 해당 지역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취업 및 창업 관련 온·오프라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지원의 배경에는 청년을 주로 사회와 조직이 필요로 하는 지식과 자격 등을 습득하고 구직을 시도하는 개인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다(전경숙, 2021). 예를 들어, 공식 전자정부 웹사이트인 온라인청년센터의 경우, 청년 지원 정책을 크게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금융, 생활·복지, 정책 참여, 코로나19 관련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중 취업 및 창업 외의 청년 정책은 하위 구분 요소의 수와 실질적인 정책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었다(온라인청년센터, 2022).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 청년은 이미 한 명의 성인 학습자로, 초·중·고등학교 시절을 거치며 자신의 가치관을 갖춘 주체적인 존재이다(신용주, 2015). 평생 직장 시대가 가고 이직이 자유로워진 시대적 상황에서 어렵게 취직한다 해도 청년들의 정체성은 지속적으로 성장통과 성장을 거듭한다(오상석 외, 2021). 청년의 정체성은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여러 사건과 경험을 지속하며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청년의 활동은 구직을 성공하기 위한 활동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경험과 문화를 존중하며 함께 소통함으로써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돕는 목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에 청년의 역할을 진로를 설정하고 사회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존재로 보았던 것에서 나아가 다양하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자신이 속한 지

역사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Illeris, 2009).

그러나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청년을 주로 코로나19와 같은 상황 속 어려움에 처한 정책적 수혜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어,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전경숙, 2021). 선행연구들은 주로 청년이 취업을 통해 경제 활동에 더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처방적 논의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이는 일 외의 활동들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수많은 사례들을 설명해주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팀은 파주의 신설 고등학교 졸업생 5명을 중심으로 2012년 시작된 멘토링단으로, 10년간 파주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멘토링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왔다. 또한, 이런 멘토링 경험이 교학상장(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의 정신으로 멘토 자신에게도 평생학습 차원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멘토 간의 상호작용에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에 본 연구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청년을 취업의 틀에 국한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단체를 형성하고 활동하면서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청년을 위한 다양한 지원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연구 목적으로 수립했다. 구체적으로는 자발적인 청년 주도의 모임과 단체 활동을 실천공동체로 정의하여 이를 경험한 청년들이 정체성을 재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질적으로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는 실천공동체가 청년의 경험을 사회 참여로서의 유의미한 학습 경험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이론이기 때문이다(이준석·백정석, 2017).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란 동일한 관심사와 문제에 대해 열정을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지식과 전문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김영옥, 2015; 이은철·최문선, 2015). 이 속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활동에 참여하고 소통하는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교육 분야의 사회 참여 활동이 그들의 정체성 재정립에 주는 의미를 확인하고자 한다. 또한, 구직과 취직을 인생의 목표로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자신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하나의 관문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방식의 청년 활동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및 기대 효과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A 멘토링단 사례를 통해 본 청년들의 실천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은 무엇인가?

둘째, A 멘토링단 사례에서 이루어진 실천 경험에 따른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위 연구 문제 해결을 통해 본 연구가 갖는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로 경기도에서 청년 주도로 10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A 멘토링단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청년 지원 정책에서 정서적 측면에 대한 고려 및 공동체 차원의 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기존의 청년 정책들은 구직과 취·창업에 위한 지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의 활동 지원은 주로 청년 개인 단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청년 세대에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비추어볼 때, 이러한 정책은 청년 1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데 기여하지만, 이미 관계 단절을 느끼고 있는 청년에게 자칫 고립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청년 실천공동체 질적 사례 연구는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생겨난 청년 단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청년들의 교육 분야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환기할 수 있는 청년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점을 제공한다. 한국 사회에서 학벌주의와 스펙 쌓기의 압박 같은 정서는 청년이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A 멘토링단 사례와 같이 청년이 주도적으로 형성한 다양한 형태의 청년 단체 및 실천공동체는 다른 청년과 함께 교류하면서 이러한 사회 풍토를 적극적으로 이겨낼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청년 정책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청년을 단지 재정적 차원에서 독립된 존재로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가정과 조직, 사회가 갖고 있는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수행해야 함을 시사할 수 있다.

셋째, 경기도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A 멘토링단 사례를 통해 경기도 청년의 다

양한 사회 참여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실제적인 운영 양상을 연구를 통해 확인하고, 지역으로부터 시작되는 청년들의 움직임을 통해 자발적인 사회 참여 증진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은 현재 경기도에 살고 있는 청년뿐만 아니라, 유년 시절 경기도에서 시간을 보내다 진학이나 진로로 인해 경기도를 벗어나 있는 청년들까지 포함할 수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현재 경기도에 거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지역에서 자신의 역량을 기르며 자신이 과거 시간을 보냈던 경기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지닌 청년들로 특징지을 수 있다. 경기도 청년 정책과 지원은 경기도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타 지역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과거와 연결된 지역의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해줄 수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A 멘토링단 사례를 통해 청년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다양한 인프라의 활용 가능성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청년들이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과정은 물리적인 장소를 필요로 하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지역에서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기 마련이다. 이러한 공간을 청년들이 어떻게 접하고 이용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의 장점과 어려웠던 점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경기도 청년 정책에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 단서를 확인할 수 있다.

II

이론적 배경

1. 실천공동체와 평생학습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 CoP)란 “동일한 관심사와 일련의 문제, 어떤 주제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분야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을 보다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집단”이다(Wenger et al., 1996/2004: p.19).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서로 만나는 것의 가치를 믿고 만나게 되며, 같이 시간을 보내는 과정에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여 서로에게 적절한 충고를 제공한다(양홍권, 2011a). 서로의 문제점 해결을 돕고 자신의 상황과 소망, 요구에 대해 토론하며 공동의 사안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서로 지식을 축적하고 비공식적으로 연결되어간다. 실천공동체에서 연결은 같이 무엇인가를 배우는 것이 소중하다는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배움은 구성원들 간 공동의 지식이나 실천(practice), 접근법의 공동 경험, 집단에서 주목하고 있는 주제와 그에 대한 독특한 시각의 개발, 개인적 인간관계의 개발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공동의 정체성 개발 등으로 드러나게 된다(정연순·이로미, 2009).

실천공동체는 직장 and 학교, 집, 취미 생활 등 다양한 영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한 사람의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학습 관점에서도 활발히 논의되어왔다(김영옥, 2015; 양홍권, 2011b; 이상수,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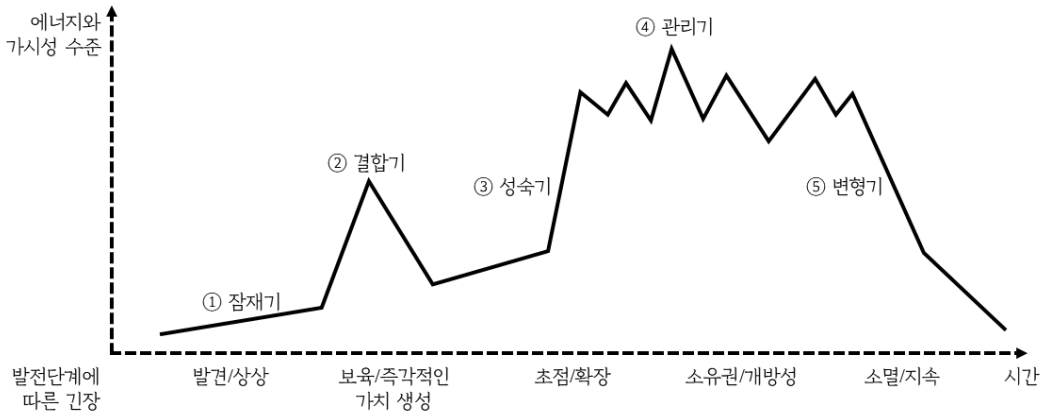
김영옥(2015)은 실천공동체로서의 학습 동아리가 학습하는 과정에서 어떤 학습 문화가 발생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4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5인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심층 면담 및 참여 관찰 중심의 질적 사례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에서는 실천공동체의 속성인 공동 업무, 호혜적 관여, 공동 자산을 중심으로 학습 동아리의 학습 과정에서 드러난 학습 문화를 설명했다. 그 결과 실천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있어서 평생학습 차원의 실천력과 학습력이 강해졌으며, 개인학습에서 공동학습으로의 전환 과정에서 나로부터 우리에게 대한 인식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양흥권(2011b)은 평생교육 진흥사업 실무자들의 실천공동체 형성과 학습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 10명의 연구 참여자 대상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 연구를 수행했다. 여기서 그는 실무자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동료와의 소통 과정에서 실천공동체를 자연스럽게 형성하게 된다고 보았다. 평생교육 차원에서 이러한 실천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친교의 장이자, 인간적 유대감 형성에 기반한 학습의 장으로 업무 수행 능력의 향상까지 연결되는 순기능적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실천공동체 내에서의 상호작용은 학습의 과정이 되었다. 실천공동체의 초기 과정에는 단순히 업무 처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학습했으나, 구성원의 경력이 쌓이고 실천공동체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정부나 지자체의 사업 추진 방향과 효과를 심도 깊게 논의하는 등 보다 높은 수준의 학습을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초기 정보를 주로 제공받던 수요자의 입장에서 변화하면서, 상대적으로 미숙한 상태의 구성원을 가르쳐주는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게 되었다.

이처럼 평생학습 및 교육 영역에서 실천공동체에 관한 논의는 ‘실천’이 갖는 교육적 가치를 강조하며, 전통적 교육의 장에서 소외되었던 구조화되지 않은 학습, 일상 학습에 관한 분석 틀을 제공해주고 있었다(정연순·이로미, 2009). 특히 실천공동체에 관한 선행연구의 논의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집중하여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한 개인의 역할과 정체성의 변화, 그 과정에서 주변 자원과의 결합 양상 등 실천공동체가 작동하는 복합적인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시도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실천공동체에서 학습을 분석하기 위한 핵심 질문 중 하나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특정한 실천공동체를 형성하고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다(배을규, 2007). 이 부분에 대해 Wenger와 연구진(1996/2004)은 실천공동체의 발전 단계를 크게 초기 단계와 성숙 단계로 구분했으며 총 5단계의 흐름으로 [그림 1]과 같이 정리했다. 실천공동체는 처음부터 최종적인 상태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주기를 닮은 유기체와 같이 성장하며,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그림 1] 실천공동체의 발전 단계



구체적으로 실천공동체의 발전 단계는 ①잠재기, ②결합기, ③성숙기, ④관리기, ⑤변형기로 구조화할 수 있으며, 단계의 흐름 속에서 공동체의 특징, 필요한 활동이 같이 변화되며 그 시기에 직면하게 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문제란 도전 과제와 같으며, 공동체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갈등이 되기도 한다.

1) 잠재기

실천공동체의 발전 단계 중 초기 단계에서 잠재기는 실천공동체가 생겨나기 이전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한 느슨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게 되는 단계로 정의된다. 공동체로 거듭나기 이전 느슨한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단체 형성을 위한 일부 요소들이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지닌 문제점이나 관심사를 공동체의 입장으로 바라보게 되고 서로 공유하게 되는 도메인이 생성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상호작용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일부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흥미를 갖고 실천공동체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노력하기도 한다.

잠재기에는 실천공동체가 태동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들이 서로 연관된 존재라는 점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점

이다. 한편으로는 함께 소통하는 과정에서 이야기를 공유하고 함께 통찰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과 나의 문제의식의 연관성이 있고,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열정을 갖고 있으며, 관심사에 대해 열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될수록 실천공동체를 형성하는 동력은 더 커지게 된다.

2) 결합기

초기 단계의 두 번째 하위 단계로서 결합기는 실천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며 자체적인 이벤트를 만들어 나가는 시기이다. 결합기에서는 모든 공동체가 묶일 수 있을 만한 활동을 개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동체의 결집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 인간관계와 신뢰가 형성되고 공동의 가치관과 목표, 공동체의 존재 의의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게 된다. 실천공동체가 단체로서의 활동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되면서 구성원들은 공인된 조직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고, 이것은 개인이 활동을 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의미를 갖게 해준다.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동체가 융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동력을 실천공동체 내부적으로 누적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이다. 실천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 구성원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각자의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이 역동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신뢰가 선행되지 않는 실천공동체는 그 집단이 존재해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며 쉽게 와해될 수 있다.

3) 성숙기

초기 단계에서 성숙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첫 번째 단계로서 성숙기에서는 실천공동체의 주요 화두가 바뀌게 된다. 이전에는 실천공동체가 존재하고 활동해야 하는 이유와 가치를 확립하는 것이 주된 관심사였다면, 성숙기에서는 새로운 구성원들이 공동체로 많이 유입됨에 따라 방관자의 발생을 관리하고 갑자기 등장하는 요구사항을 이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를 초기부터 이끌어왔던 핵심 구성원들은 새로운 요구사항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

과 에너지를 투입해야 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숙기의 중요 과제는 새로운 구성원이 공동체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과 새로운 요구사항에 대해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경험을 생성하는 것이 된다. 이 과정은 교육 차원에서 나와 다른 타인을 적극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4) 관리기

관리기는 성숙한 실천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유동하면서 앞서 성숙기의 단계를 거치며 누적해온 공동체로서의 역량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는 시기이다. 관리기에서는 성숙기를 통해 유입된 새로운 구성원들과의 소통을 통해 공동체가 앞으로 추구해야 할 중요한 도메인이 무엇인지를 재정립하고, 이에 대한 관련성을 유지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게 된다.

관리기의 중요 과제는 앞선 단계에서 공동체의 성장을 주된 관심사로 보았던 것보다 단체에 대한 주인의식과 개방성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전 단계에서 갖고 있던 공동체의 분위기를 계속 활기차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한편으로는 실천의 측면에서 최신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공동체의 기본적인 역량이 충분히 확보된 것을 전제로 하는 상태에서의 성장을 유지하는 것과 같다.

5) 변형기

변형기는 실천공동체가 새로운 구성원 간의 관계 상황 속에서 활동 경계를 확장하게 되면서 운영을 위한 목표가 희석되어 운영의 혼란을 겪게 되는 과정과 이를 극복하는 시기를 말한다. 급격한 변형 상황은 유기체에게 만크이나 실천공동체에게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회나 조직에서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하고 공동체에 대한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되면서 이를 극복하지 못하는 단체는 사장될 수도 있으며, 다른 실

천공동체와의 변별력을 잃게 되며 사라지게 되기도 한다.

변형기에서는 실천공동체로서 단체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 중요 과제로 논의되며, 부드러운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새로운 회춘의 기회를 확보할 것인가 사이의 선택을 해야 한다. 부드러운 결말이란 실천공동체가 지금까지 누적해온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가치를 정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새로운 회춘의 기회를 확보한다는 것은 단체가 고도화되는 데 있어서 전략적으로 선택해야 할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실천을 지속하는 과정으로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선택지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는 실천공동체 내부 구성원들의 판단에 근거한다.

모든 공동체가 발전 단계를 순차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아니며 문제 상황 또한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순차적 흐름으로서 분석하는 과정은 공동체가 자생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될 지점을 확인하고 시의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는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더 나아가 다양한 실천공동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같이 자생할 수 있는 비옥한 학습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2. 청년 사회 활동과 정체성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된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조진우(2020)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청년이 단지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성인이라는 표현을 넘어서, 한 사회를 지속시키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동력이 되는 대상으로 논의됨을 설명했다. 특히,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등 사회적 차원의 문제가 고착화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의 삶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이 의무교육 기간을 거쳐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을 함양하고 있는 우수한 인적 자원으로 사회에서 기능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삶의 질의 하락을 경험하거나, 반대로 사회 진입을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삶에 집중하는 현상을 보여주는 등 하나의 틀로 구조화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과 문제의 양상은 단일의 방향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이는 지금의 청년 문제가 단지 일시적인 취업의 어려움이나 젊은 시절 누구나 한번쯤 거

치는 도전 과제와 같이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청년에 대한 문제는 단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수 없으며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이끌어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육적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은 청년 개인에게 전통적인 관점의 학습을 양적으로 많이 제공해주는 것이 지양되어야 한다. 교육의 3요소를 학습자, 교수자, 학습 내용으로 설명할 때, 성인 학습자로서의 청년상 재정의, 현 사회 상황에 부합하는 학습 내용, 다양한 학습 기회와 활동을 촉진 및 매개하는 교수자 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청년의 사회 활동은 사회로부터 개인이 고립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게 해주며, 가장 가까운 타인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 기능하여 기존의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해결이 필요했던 문제들의 복합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청년을 포함한 일반적인 성인에게 있어서 사회 활동은 활동 주체로서 개인이 타인과 조직 또는 사회와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외부로 드러내기 위해 다양한 역량을 발휘하는 과정 및 결과를 통칭한다(강효민, 2011). 정체성에 대한 논의는 개인적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의 동일함(sameness)과 차이(difference)에 근거하여 사람들의 문화적인 양상을 정서적으로 규정하는 개념이다(오원환, 2011). 정체성의 탐색과 관련한 선행연구들에서 정의했던 정체성의 하위 요소를 다음의 <표 1>과 같이 정리했다.

<표 1> 정체성의 하위 요소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논의

연번	구분	정체성의 하위 요소
1	Erikson (1968/19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문화적 정체성 • 개인 정체성 • 자아 정체성
2	민은주·윤병천 (20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식과 태도의 변화 • 자기 규정 • 심리적 친밀감의 형성
3	김수연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적 자아 • 자아 존중감 • 자아 효능감
4	홍영숙 (20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적 정체성 • 언어 정체성 • ‘살아내는 이야기’로서의 정체성

Erikson(1968/1990)에 따르면, 정체성은 연구 단위 차원에서 집단 수준의 사회적·문화적 정체성과 개인 정체성, 자아 정체성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첫째,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은 어떤 그룹에 소속된 정체성이나 감정에 관한 것으로, 한 사람이 경험한 민족, 종교, 사회 계급, 세대, 지역, 특정 문화를 갖고 있는 사회 그룹과 연결되어 형성된다. 둘째, 개인 정체성은 자기 동일성의 지각, 자기 존재의 계속성, 타인의 인정에 근거하여 형성되는 것이다. 셋째, 자아 정체성은 자아의 질과 연관된 것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확고한 자기 자신의 상을 의미한다.

민은주와 윤병천(2011)은 수화가 농청년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면서, 정체성의 구분을 인식과 태도의 변화, 자기 규정, 심리적 친밀감의 형성으로 설명했다. 첫째, 인식과 태도의 변화는 농아인과 농문화에 대한 심리적 차이를 말했다. 둘째, 자기 규정은 농청년 자신이 누구인가에 관한 것으로 앞서 Erikson(1968/1990)의 개인 정체성과 같이 자신에 대한 이해와 타인과의 관계로부터 오는 스스로에 대한 이해가 어느 하나로 규정되지 않고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심리적 친밀감은 청인 문화와 농아인 문화 사이에서의 편안함의 정도를 표현한 개념으로 Erikson(1968/1990)의 사회적·문화적 정체성의 정의와 유사한 모습을 보였다.

김수연(2019)은 대학생의 정체성 혼미와 우울의 관계를 보는 연구에서 정체성에 대해 언급했다. 여기서 그는 청년기에 정체성이 확립되는 것을 중요한 발달 과제로 언급하면서, 정체성 확립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들을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의 모델로 제시했다. 이 중 긍정적 요인이 청년의 정체성 형성을 구성하고 강화하는 데 의미 있게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 요인의 첫 번째는 사적 자아로, 자신의 내면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을 때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자기 인식의 양상을 의미한다. 둘째, 자아 존중감으로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과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파악하는 감각을 의미한다. 셋째, 자아 효능감으로 어느 문제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 어느 상황에서 필요한 행동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인지를 의미한다.

홍영숙(2021)은 캐나다의 한국계 이민가정 청년이 언어 정체성을 무엇으로 형성하는가에 대한 내러티브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정체성을 사회문화적으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언어 정체성을 크게 사회문화적 정체성, 언어 정체성,

‘살아내는 이야기’로서의 정체성의 이론에 기반하여 설명하고 있었다. 특히 ‘살아내는 이야기’로서의 정체성은 일상 속 형성된 경험적 지식과 자신의 내재적 환경 및 외재적 환경들이 상호작용하게 되면서 한 사람의 이야기를 구성, 재구성하기도 하고 변화된 새로운 내용으로 바꾸게 된다고 보았다.

관련 선행연구들은 종합한다면 첫째, 정체성을 연구 단위나 주제에 따라 다양한 하위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었다. 둘째, 정체성의 주체인 특정 대상에 대한 맥락을 토대로 구분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정체성의 형성 과정을 설명하고 있었다. 셋째, 정체성의 하위 요소는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될 수 있으나 이분법적으로 분리된 관계가 아닌, 이 두 차원이 겹치게 되는 지점들까지 함께 고려하여 정의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정체성을 급변하고 있는 사회 구조와 상황 속에서 자신을 둘러싼 체계들과 상호작용함으로써 자신의 주관을 표현하거나 변화시키는 역동적인 움직임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청년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하위 요인으로 자신에 대한 재인식,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로 나누어보고자 한다. 첫째, 자신에 대한 재인식은 사회 활동을 참여하는 과정에서 이전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을 알게 되고 개인의 내면적 차원에서의 정체성 형성을 의미한다. 둘째,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은 개인의 내면에서 외면으로 넘어가게 되는 중간다리로서, 사회 활동 과정에서 크고 작게 생겨나는 경험들을 통한 정체성의 변화를 의미한다. 셋째,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는 개인의 외면 차원에서 책임감과 유대감, 연대감 등 소속된 단체로부터 촉발되는 타인과 사회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이끄는 것을 말한다.

III

관련 정책 분석

1. 청년 사회 활동 지원 정책 분석

기존의 청년 사회 활동 관련 지원 정책에 대한 분석은 온라인청년센터 및 경기청년 포털 등 대표적 정부 지원 창구를 통해 관련 정책을 분석했으며 참고한 자료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표 2> 관련 정책 분석을 위해 참고한 문헌 목록

연번	유형	저자(연도)	제목
1	보도 자료	행정안전부 (2022)	지역 활력을 이끄는 청년공동체를 찾습니다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 청년공동체 140개 팀 모집 및 활동 지원-
2	사업 공고문 및 안내 자료	전남인재평생교육 진흥원 (2021)	「2021년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고
3		경기도 (2018)	2018년 경기도 청년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고
4		경기도 (2020)	2021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5		경기도 (2022)	경기도 청년공동체 협력사업(청이담) 모집 공고
6	논문	안정희 (2017)	지방 분권 시대의 청년공동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7	신문 기사	한혜성 (2021)	청년 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1090호>
8	연구보고서	대학내일20대연구 소 (2018)	청년의 진짜 행복을 위한 청년 정책을 찾아서

먼저, 고용노동부의 공식 웹사이트 온라인청년센터는 청년 정책을 크게 취업 지원, 창업 지원, 주거·금융 지원, 생활·복지 지원, 정책 참여, 코로나19 관련 정책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하위 요소와 실질적인 정책의 수가 많은 지원 분야는 취업 지원(하위 요소 4가지, 총 1162건)이었고, 다음으로는 창업 지원(하위 요소 3가지, 총 453건)과 주거·금융 지원(하위 요소 3가지, 총 447건), 생활·복지 지원(하위 요소 27가지, 총 420건)이 비슷한 수준이었다. 온라인청년센터의 청년 관련 정책들을 살펴본 결과, 취·창업 중심의 정책 지원 분야가 가장 많고, 그 외에는 복지 관련 수혜적 혜택을 주는 정책이 주를 이룸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대학내일20대연구소의 ‘정부·지자체 추진 청년 정책에 대한 1934 청년들의 인지 수준과 만족도 평가보고서(2018)’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청년 정책 내용을 알고 있다는 청년은 34.9%에 불과하며, 인지한 경우에도 만족도가 32.5%로 낮았다. 이들은 청년 정책 불만족의 이유를 정책의 진정성으로 꼽았다. ‘단기간의 성과 중심 추진 방식’이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절반(51.7%)을 차지하였고, ‘청년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관심이 없어서(33.0%)’가 뒤를 이었다. 정책 전문가들은 해결책으로 청년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정책 참여 분야의 청년 정책이 관심을 받고 있다. 청년 정책 관련 토론 패널 모집이나 속의 토론회 운영 등이 그 예시이다. 하지만 아직 청년공동체에 대한 정책 및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대표적 정책인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연계·진행하는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현황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표 3> 국가(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황

국가(행정안전부)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현황	
2017년	• 인구 감소 지역 대상 청년들의 정착(이주) 지원 목적으로 시범 사업을 시작
2018~2019년	•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위한 멘토링 기반 컨설팅 지원 - 2018년 18개 팀, 2019년 17개 팀
2020년	• 멘토링 기반에서 기존 지역 청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체계 개편 • 성과 목표에 따른 과업 수행비 지원 및 멘토 컨설팅 지원 병행 (16개 팀)
2021년	•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전환하여 예산 확대를 통한 사업 규모 확대 • 지원 규모를 11개 시도, 100개 팀으로 확대
2022년	• 지원 팀 규모 및 참여 시도 확대 (15개 시도, 140개 팀) • 인구 감소 지역 및 코로나19 일상 회복 관련 신청팀에 가산점 부여하여 독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이주 및 정착을 돕기 위해 2017년 시범 사업으로 시작되었으나, 지원 방향을 변경하면서 참여 시도, 지원 규모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올해 경기도의 공고문 내용을 살펴보면 신청 대상을 현재 도내 거주 청년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5인 이상이 모여 설립한 법인 혹은 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증 발급 받은 단체로만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지역 기반 일자리나 정착을 위한 청년 공동체의 지원이 용이한 측면이 있다. 이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신생 청년공동체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고, 청년 인적 자원을 거주 지역 단위로 단절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다양한 방식과 계층의 청년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좀 더 문턱을 낮춘 지원이 필요하다. 일례로 전라남도의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되 도내 청년 외에도 도내에서 초·중·고 혹은 대학교를 재학·졸업한 청년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초·중·고 졸업 이후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이 많은 경기도에도 청년이 다시 지역에 돌아와 초·중·고 시절을 보냈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또한, 도내 출신 청년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인 설립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해당 사업처럼 면접 및 청년공동체와의 견을 조율하여 지원금을 차등해 지급하는 방식도 다양한 방식과 계층의 청년공동체를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청년공동체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원 확대가 시작된 지금, 앞으로는 다양한 방식과 계층의 청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단기적이고 경제적 논리에 기반한 지원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다양한 청년 인적 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청년 시절부터 지역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한다면 장기적으로 지역사회 공동체는 더 공고해질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취·창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이는 청년과 지역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 없어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청년이 사업 파트너로서 청년공동체를 형성해 지역에 정착하거나 취·창업을 하는 것만이 아닌, 지역사회 공헌 및 지역의 공동체 의식을 기르는 방향으로 확장해 나가는 것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청년에게 유의미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교육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청년의 공동체 활동이 어떻게 청년 개인에게는 정체성 재정립, 지역사회에는 지역 발전 및 교육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청년 교육 분야 지원 현황 분석

본 연구 주제인 교육 분야의 실천공동체 사례가 청년의 정체성 재정립과 평생학습 차원에서 청년에게 주는 영향을 알아보기에 앞서 기존 청년 정책 중 교육 분야의 지원 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주도 청년 정책 현황은 5개년 시행계획을 수립한 중앙 부처의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2021)'과 경기도의 '2022년 청년 정책 시행계획안(2022)'의 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해당 청년 정책 기본계획과 지자체별 시행계획안은 과거 정부와 지자체가 별도로 청년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오던 것에서 벗어나 여러 부처와 지자체가 공동의 청년 정책 로드맵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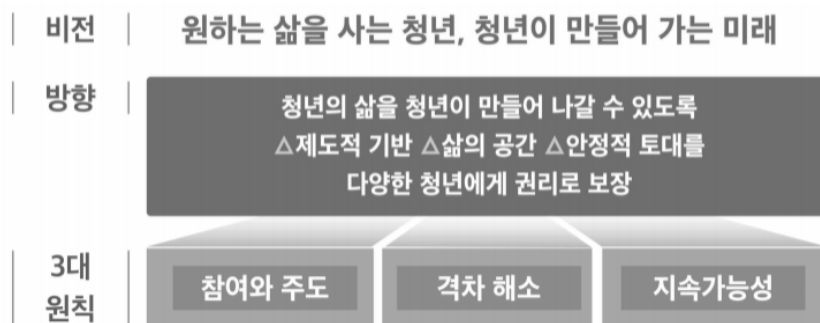
<표 4> 2021년 중앙부처 청년 정책 시행계획 분야별 과제 수(개) 및 예산(억 원)

분 야	과제수	예 산 ¹⁾		
		'20년 ²⁾	'21년	(비중,%)
합 계	308	199,357	238,338	
I. 일자리	115	62,855	82,197	34.5
1. 청년 일자리 확대 및 역량강화	57	45,991	63,490	
2. 청년 창업 활성화 및 내실화	40	10,071	12,052	
3. 일터 안전망 강화	9	23	26	
4. 공정채용 기반 구축·직장문화개선	9	6,771	6,630	
II. 주 거	24	70,974	87,039	36.5
1. 청년주택 공급 확대	8	40,852	50,970	
2. 청년 전·월세 비용 경감	6	27,072	28,929	
3. 주거취약 청년 집중 지원	4	2,850	7,125	
4. 청년친화형 주거모델 보급	6	200	15	
III. 교 육	88	53,306	56,793	23.8
1. 고른 교육기회 보장	15	43,145	43,907	
2. 청년의 미래역량 강화	39	4,716	6,041	
3. 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30	5,160	6,422	
4. 온택트 교육기반 구축	4	285	423	
IV. 복지·문화	50	11,238	11,623	4.9
1. 사회출발 자산 형성 및 재기 지원	4	599	752	
2. 청년 건강 증진	9	5,939	6,057	
3. 취약계층 지원 확대	11	282	360	
4. 문화가 있는 청년의 삶 지원	26	4,418	4,454	
V. 참여·권리	31	984	685	0.3
1. 정책결정과정에 청년 주도성 확대	6	11	11	
2. 청년정책 추진기반 마련 및 내실화	4	0	3	
3. 청년 친화적 정책 전달체계 확립	8	102	160	
4. 청년 권익보호 및 청년교류 활성화	13	871	511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교육 분야 청년 정책은 1)고른 교육 기회 보장, 2)청년의 미래 역량 강화, 3)교육-일자리 연계 강화, 4)온택트 교육 기반 구축으로 중점 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먼저 각 부처에 2017년 5월 이후 새로 도입된 청년 정책 주요 사업 예시를 살펴보면,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저소득층 대학 등록금 부담 제로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마이스터대 도입, 대학생 마음 건강 지원’이 있고, 과기부 주관의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운영’이 있다. 위의 <표 4>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2021년 시행 중인 과제의 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 분야의 지원(88개)은 일자리 분야(115개) 다음으로 많은 정책이 시행 중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요 사업 예시에서 드러나듯 이는 교육비 지원과 고용 및 취·창업 관련 교육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이후 더욱 심각해진 격차 해소를 위해 청년을 위한 교육비 지원은 필수적이며 기존보다 예산을 늘려 보장을 확대한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본 연구진은 청년 정책 기본계획의 핵심 체계도에 제시된 3대 원칙 중 ‘참여와 주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청년의 정체성 위기는 의무교육 시기 이후부터 입시 준비와 취업 준비, 취업 이후 직장 적응하고 이직을 하면서 이어지는 진로 고민과 관련이 있다. 청년의 정체성 위기는 시기별로 여러 번 찾아올 수 있다. 게다가 청년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관계 맺기에서 멀어져 고립되기도 쉽다. 복지 차원의 교육비 지원과 취·창업을 돕는 지원으로 교육 분야의 지원을 한정한다면 대학 시기와 취업 준비생 이후 시기에는 지원이 어렵고, 평생학습 차원에서 성인 학습자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림 2] 제1차 청년 정책 기본계획 체계도



따라서 교육 분야의 청년 정책에서 좀 더 청년의 주도성을 높이고, 청년의 주기별 위기 상황에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적 지원의 범위를 넓혀 평생학습 차원에서 청년의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의 본질은 타인의 개입 없이도 성인 학습자가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의 주도권을 가지며, 이를 전 생애에 걸쳐 학교 외의 공간인 가정과 사회에서도 실천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청년에게 교육비 지원이 주를 이루었던 기존의 정책에 청년이 주도적으로 운영하는 단체 차원의 지원을 추가하는 방식을 제안해본다. 이는 자칫 고립되기 쉬운 청년에게 청년공동체를 형성·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기도 하다. 청년이 자발적·주도적으로 형성한 청년 단체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학습공동체’로도 볼 수 있다.

청년은 청년 단체 및 청년공동체를 통해 주도적으로 다양한 경험을 함으로써 주기적인 정체성 위기 상황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구성원과 상호작용하며 정보를 얻고, 자신과 타인의 경험을 비교하여 진로 설계에 도움을 받는다. 이는 입시와 취업을 위한 목적성의 진로 설계 지원보다 청년의 가치관 및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더 깊은 영향을 줄 것이다.

또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형태의 청년 단체 및 청년공동체를 지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특수성으로부터 기인하는 청년들의 교육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환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 청년은 입시 준비와 대학 졸업 이후에도 계속 학벌주의와 스펙 쌓기의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교육 분야의 봉사 경험은 이를 환기하고 성인 학습자의 지속적인 학습 경험과 성장에 긍정적인 환기 기회가 된다. 특히 교육 분야에 기여하는 청년 단체는 혜택을 받는 초·중·고 학생과 그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청년 스스로의 발전에도 도움이 된다. 나아가 지역 기반의 청년 단체의 경우,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이 커지고 청년이 앞으로 사회에 참여할 가능성을 길러준다.

마지막으로 기존 경기도 및 중앙정부의 ‘청년공동체 활성화 지원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들을 낮추고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의 정책 보완뿐만 아니라, 평생교육 정책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노인 지원 사업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청년 단체와 넓게는 청년공동체를 형성·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 평생학습센터’와 같은 거점 센터를 생각해볼 수 있다. 실제로 지금도 매년 교육부에서 평생학습 참여 실태조사를 진행할 때 만 25세 청년부터 만 79세 노년층을 포괄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도 청년을 대

상으로 취·창업 목적성 프로그램 외의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 지원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어렵다. 입시 이후와 대학 졸업 이후의 청년들의 여가 생활과 공동체 활동은 개별적이거나 일정 금액을 지불하여 사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임에 참여하는 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미 형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청년공동체를 찾아 지원하여 지역사회에 홍보하고, 평생학습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자연스럽게 조성하는 등의 방법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또한, 청년 정책이 앞으로 ‘청년을 위한’ 교육뿐만 아니라, 청년의 주기적 위기를 알아보고 대비하는 ‘청년에 관한’ 교육, 청년의 경험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청년에 의한’ 교육을 포괄할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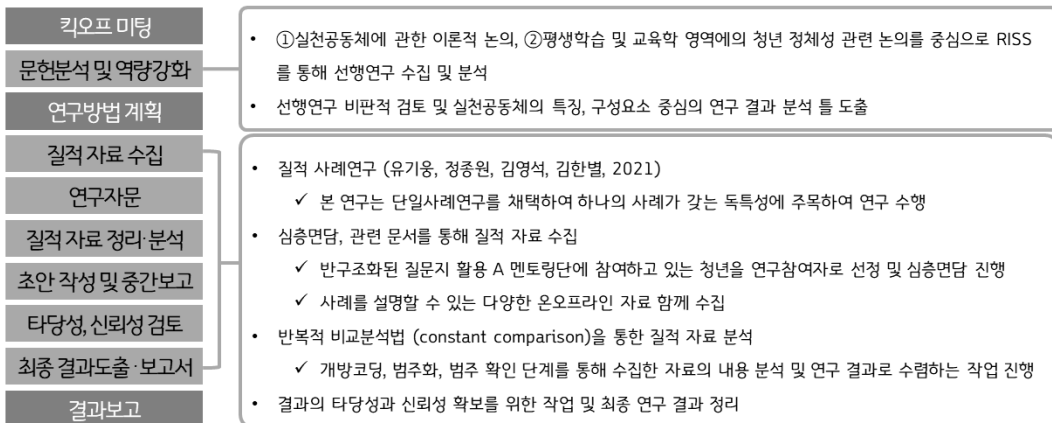
IV

연구 방법

1. 연구 절차

본 연구는 질적 사례 연구 방법에 기반하여 다음의 [그림 3]과 같이 연구 절차를 수립했다. 질적 사례 연구란 질적 연구 방법을 적용한 사례 연구를 의미한다(유기웅 외, 2018). 사례 연구란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 또는 사회적 단위에 집중하여 이것에 대한 전체적 설명과 분석을 수행하는 연구 방법이다. 연구 절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진 간 킥오프 미팅 후 문헌 분석과 학습을 통해 이후 연구 수행을 위한 연구 역량을 강화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전반적인 진행 방법을 계획하였는데, 질적 자료 수집, 연구 자문, 질적 자료 정리 분석, 초안 작성 및 중간 보고,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최종 결과 도출 및 보고서 작성의 순서로 진행했다.

[그림 3] 연구 절차



2. 사례 선정

질적 사례 연구에서는 사례를 무엇으로 정의하느냐가 중요한데, 본 연구는 단일 사례 연구로 하나의 사례가 갖는 독특성에 주목하여 A 멘토링단을 사례로 정의했다. A 멘토링단은 파주의 신설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자발적으로 조직·운영해온 멘토링 단체이며, 파주 지역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역 기반 공동체 활성화 및 멘토링 활동을 진행해왔다. A 멘토링단 소속 청년들은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며 최근 멘토들 간의 관계에도 집중하여 멘토링 외의 멘토 교류 활동도 진행해왔다. 따라서 이 사례를 집중 분석함으로써 청년이 주체가 되는 교육 분야의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했다.

3. 자료 수집 방법

질적 자료 수집을 위해 문헌 분석과 심층 면담을 진행했다. 문헌 분석을 통해 본 연구와 관련 있는 기존 청년 지원 정책과 청년공동체의 선행연구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론적 배경으로 정리했다. 또한, 심층 면담에 앞서 연구자가 연구 참여자와의 소통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쌓았다.

〈표 5〉 연구 참여자 명단

연번	구분	활동 연수	나이	성별	특징	비고
1	연구 참여자 A	8년	31살	여	호주에서 셰프 근무 중	단체 초창기 활동 멤버
2	연구 참여자 B	8년	28살	남	IT 직종 개발자 근무 중	
3	연구 참여자 C	8년	28살	남	IT 직종 개발자 근무 중	
4	연구 참여자 D	8년	28살	여	반려동물 플랫폼 MD로 근무 중	
5	연구 참여자 E	7년	26살	남	공시 준비로 휴학 및 4학년 복학	단체 안정기 활동 멤버
6	연구 참여자 F	6년	29살	남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 중	
7	연구 참여자 G	5년	28살	여	대학 휴학 및 공무원 시험 준비 중	
8	연구 참여자 H	6년	27살	남	선거 캠프 봉사 활동 및 취업 준비 중	

이후 심층 면담 진행을 위한 연구 참여자 명단을 <표 5>와 같이 수립하였다. 사례로 선택한 A 멘토링단 소속 청년들 중 단체 초창기와 안정기 활동 멤버로 나누어 각각 4명씩 연구 참여자를 구성했다. 심층 면담은 총 2회 진행되었으며, 1차 면담에서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고, 2차 면담에서는 1차 면담의 내용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면담 과정은 연구진이 모두 참여하여 편안한 분위기에서 연구 참여자가 응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유도되었으며, 1회당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반구조화된 형태의 질문지는 연구진의 질적 자료 수집을 원활하게 해주는 한편,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전략적인 방법이 된다. 1차 심층 면담에 활용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는 연구 목적과 연구 문제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진들이 다음의 <표 6>과 같은 내용으로 사전에 준비하되, 연구 참여자와 개별적으로 면담하는 과정에서 순서나 내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하고자 했다.

<표 6> 1차 심층 면담 질문지 구성 내용

연번	질문
1	본인에 대한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2	본인께서 A 멘토링단에 들어가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3	A 멘토링단에서 활동한 이후 본인에게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 활동 전과 후의 변화된 것은 무엇인가요? - 그러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20대 초·중·후반 멘토링 활동을 하면서 성장을 느낀 부분은 무엇입니까? - 이러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청년들에게 필요한 정책적 지원은 무엇입니까?
4	A 멘토링단 활동에서 본인에게 의미 있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멘토링단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 A 멘토링단에서 활동하면서 자기 통찰을 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었나요?
5	A 멘토링단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6	A 멘토링단 활동 중 운영에 어려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 A 멘토링단 활동 중 운영에 어려웠던 부분을 어떻게 극복했나요?
7	A 멘토링단에서 긍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8	A 멘토링단의 활동 중 현재 지속되고 있는 것과 단절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A 멘토링단의 위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9	A 멘토링단 활동과 관련하여 청년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는다면 어떤 부분에서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나요?

연번	질문
10	A 멘토링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청년으로서 본인의 삶에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본인은 청년으로서 어떤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11	혹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1차 심층 면담을 통해 확보한 질적 자료는 한글 파일로 전사를 진행했다. 전사란 녹음 형태로 수집된 자료를 연구용 자료로 변환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총 8회에 걸쳐 진행된 심층 면담 녹화 음성을 듣고 연구진이 이를 문서로 정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음’, ‘어’ 등 비언어적인 요소는 삭제하고 마침표, 물음표, 쉼표 등을 토대로 대화의 흐름을 표시했다. 1차 심층 면담 전사를 통해 A4 용지 기준 총 82장 분량의 질적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2차 심층 면담은 우선 1차적으로 진행된 개방 코딩 및 범주화 결과를 연구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다시 물어보아야 할 부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이후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경우 2차 심층 면담은 주로 청년 사회 활동을 통해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더 물어보는 시간으로 진행되었으며, 이외 연구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들을 한 번 더 듣는 시간으로 구성되었다. 2차 심층 면담에 활용한 질문지는 다음의 <표 7>과 같이 준비하고, 1차 심층 면담 때와 마찬가지로 개별 연구 참여자의 설명에 따라 순서와 내용을 적절히 적용했다.

<표 7> 2차 심층 면담 질문지 구성 내용

연번	질문	
1	지난번 심층 면담은 어떠했습니까? 종료 후 추가적으로 떠오른 생각이나 의견, 소감 등이 있다면 편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	자신에 대한 재인식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멘토링하기 위해 준비하고 실제로 학생들 앞에서 이야기해보았던 경험이 있었습니까? 그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3		우리 단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아쉬웠거나 즐거웠거나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 무엇을 느꼈습니까?
4		우리 단체에서 멘토링을 통해 소소하게 갖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성과는 무엇입니까? 그로부터 느낀 점이나 생각은 무엇입니까?

연번	질문	
5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우리 단체에 대한 경험이 자신의 이후 다른 사회 활동이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준 영향은 무엇입니까?
6		우리 단체에서 했던 다양한 경험들이 자신의 성장에 준 의미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		우리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이전에 해본 적 없는 또는 꿈꿔왔던 경험을 해본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8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	우리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책임감, 유대감, 연대감 등 어떤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와 관련한 경험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9		우리 단체에서 멤버십을 형성해 가는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나은 인적 자원이 되기 위해 노력한 경험이 있습니까? 독서 모임과 같은 소모임 활동, 개인적 노력 모두 관련하여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경험이 있다면 편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10	혹시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확보한 질적 자료 외에 A 멘토링단의 역사와 맥락 등을 설명해줄 수 있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자료들을 함께 수집했다. 이때 텍스트로 되어 있지 않은 영상, 음성 자료나 온라인 카페 활동과 같이 모든 텍스트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연구자들이 합의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전사 또는 캡처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수집한 질적 자료의 분석과 해석을 위해 반복적 비교분석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활용했다. 반복적 비교분석법은 다양한 질적 자료를 분석할 때 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많은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 방법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21). 구체적으로 개방 코딩, 범주화, 범주 확인의 단계를 통해 수집한 질적 자료의 내용을 분석하고 연구 결과로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5.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 방법

연구 결과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작업을 통해 최종 연구 결과를 정리했다. 이때 타당성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 방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요 타당성 전략 중 연구 참여자 확인법, 동료 검토법, 삼각 검증법 등을 활용했다. 질적 연구 방법에서 의미하는 신뢰성 확보란 질적 자료 수집 과정에서의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므로 연구 참여자에게 최대한 자세한 연구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팀의 주관성이 개입되지 않게 하며 연구 전체 수행 과정을 문서·영상 등의 형태로 기록하여 연구 과정의 엄격함과 진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또한, 본 연구 과제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담당 연구위원(행정학 박사 1인)과 긴밀히 협조하며, 연구 진행 전반의 과정에서 연구 컨설팅을 받았다. 연구 컨설팅 과정에서 연구 진행 방법, 결과보고서의 목차, 1차 및 2차 심층 면담의 질문지 구성, 연구 결과 및 결론의 개괄사항 등을 연구위원과 함께 검토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논지 전개에 모순이 없고, 편중되지 않은 시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V

연구 결과

1. A 멘토링단 사례에서 드러난 실천공동체 형성 과정에서의 특징

첫 번째 연구 결과로서 A 멘토링단 사례를 통해 본 실천공동체의 형성 과정은 다음과 같은 <표 8>로 단계를 구분하고 범주화할 수 있었다. 범주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범주화의 첫 번째 내용은 A 멘토링단 사례에서 각 단계별로 드러나는 특징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두 번째로는 실천공동체로서 A 멘토링단이 형성되어온 각 단계마다 직면했던 도전 과제가 무엇이며, 여기서 청년 정책 지원으로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결과를 정리했다.

<표 8> A 멘토링단의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별 특징 및 도전 과제 범주화 결과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	범주화 내용	
	특징	도전 과제
잠재기	과거의 경험, 타인에게 선했던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단체 형성의 동기 생성	청년들이 자발적인 결속을 갖게 만들기 위한 공통점 탐색과 소통의 장 마련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오는 결핍을 유사한 기회를 통해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활동의 동기로 작용	
결합기	자신의 일상 고민을 공유하고 유사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사회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유관 기관과 인프라 및 소통 채널 확보
성숙기	단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외부적인 어려움을 마주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단체의 정체성 확립	실천공동체로 지속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탐색 및 강화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	범주화 내용	
	특징	도전 과제
관리기	성숙한 구성원이 각자 다양성을 강화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인적 자원으로 기능	안정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의 인증 방법 모색
변형기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접촉하는 대면 활동의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면서, 단체 유대감이 부족해졌다는 위험요인 발생	운영 이력과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방향성 탐색 및 장기적 운영 전략 개발

1) 잠재기

잠재기는 실천공동체의 발전 단계 중 가장 초기의 단계로서, 공동체가 형성되는 시기의 가장 느슨한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의 단계를 의미한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A 멘토링단이라는 사회 활동 단체가 형성되던 가장 초기의 경험을 물었을 때, 이 단계와 관련한 질적 자료를 수집했으며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실천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단체 형성의 가장 초창기 느슨한 네트워크에 참여했던 동기로 과거의 경험이나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고 있었다. 자신과 가까운 관계로 예상되는 타인, 자신과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 과거 유사한 활동에서 느꼈던 긍정적 감정이 청년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위한 기본적인 네트워크 형성에 기여하고 있었다.

“사실 저도 멘토링을 누군가에게 받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던 말이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후배들도 제가 나가서 멘토링 하는 것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했어요. 그게 제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2022.6.4.)

“제 생각보다 학업에 치여 살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멘토링단에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 같아요.” (참여자 E, 2022.6.4.)

“저도 도움을 받았기도 했고. (중략) 제가 고3이었을 때 그 형이 22살이었나, 23살이었나,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줘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멘토링단에) 들어갔죠.” (참여자 F, 2022.6.26.)

이는 다양한 실천공동체가 시작되는 환경 조성에 한 청년이 기억하고 있는 그 지역에 대한 과거 경험이 작용함을 보여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을 진학하고 취업을 하는 등 각자 사회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줄었거나 아예 경기도를 떠나 서울에서 주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청년들에게 청소년기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경기도와 자신이 속했던 시·군·구 지역은 청년이 되어 실천공동체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로 작용했다.

둘째, 느슨한 네트워크 형성에 있어서 청년 개인이 과거 또는 현재 경험으로부터 갖고 있었던 결핍의 요소는 실천공동체의 활동과 결합될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승화시키고자 하는 의지로 변화되었다. 청년들은 과거 자신의 초·중·고등학교 시절 겪었던 입시와 학업에 관해 어려움을 느꼈던 순간에서 타인의 도움, 정보의 부재 등 다양한 결핍을 경험했다. 이는 경기도 특정 지역에서 함께 청소년기를 보냈던 청년들끼리의 네트워크 형성 과정에서 서로 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했으며, 왜 실천공동체로서의 단체 형성이 필요한지에 대한 공동의 합의로 작용했다.

“입시 방향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알려주고 싶은 멘토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멘토링을 했던 게 대학교 탐방 멘토링이었어요. (중략) 내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답답했던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참여자 H, 2022.6.26.)

“제 생각에는 한국 교육의 특성상 전공을 선택할 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중략)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성적에 맞춰서 수시 원서를 넣었던 케이스여서, 처음에 대학교에 입학해서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자퇴를 결심하게 됐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자퇴를 할까, 아니면 다른 전공을 옮길까 이런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거를 예방하고자 사전에 멘토링단이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멘토링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참여자 A, 2022.6.29.)

위와 같은 실천공동체의 잠재기 단계에서 드러난 A 멘토링단의 특징들은 청년들의 실천공동체 형성에서, 청년들이 자발적인 결속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점을 탐색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도전 과제로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게 해주었다. 도전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해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 ‘졸업생이 이끄는 단체’, ‘비슷한 동네’, ‘지역 기반 커뮤니티’, ‘공감대 형성’ 등 연구 참여자들의 표현을 통해서 뒷받침되고 있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해서 그런지 끈끈함, 가족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공통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라든지 유대관계, 학연이 진짜 큰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앞으로도 계속 볼 거고, 그게 가장 큰 우리 단체의 특징인 것 같아요.” (참여자 D, 2022.6.4.)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면 졸업생들이 이끄는 단체라는 거예요. (중략) 다른 그룹과는 다르게 좀 더 서로 챙기고 이끌어 가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참여자 C, 2022.6.26.)

이는 과거 기성세대에서 비판받았던 학연주의·지연주의와 같은 개념이 오히려 청년들의 실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는 학연·지연의 공통적 요소로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청년들은 실천공동체 형성에 있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지역의 특수성, 서로 공감하는 과거 경험들에 대해 공유하되, 공공의 목적성을 띤 네트워크 형성의 동력으로 활용했다.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청년들의 만남과 교류 과정 속에서 ‘주의화(ismization)’가 되지 않았다.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생활 방식이 그렇게 막 다들 이렇게 튀지가 않잖아요. 비슷한 동네에 살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중략) 우리 단체만의 독특한 특징이 일단은 지역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고, 처음부터 약간 공감대 형성이 된 상태로 들어가다 보니까, 친해지는 게 편하다고 볼 수 있었죠? 좀 더 편한 느낌이 강하죠. 다른 모임들에 비해서.” (참여자 G, 2022.6.26.)

이는 Wenger와 연구진(1956/2004)이 잠재기 단계를 실천공동체의 태동 단계로 보고, 이 시기 가장 중요한 것이 구성원들이 서로 연관된 존재로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데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천공동체에 잠재적으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들이 서로 소통하고 각자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공유하며 서로 연관되는 문제의식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경기도의 특정 시·군·구에 관한 자신들의 경험은 촉매제와 같이 기능했다.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목적과 문제의식, 의견을 갖고 있는 청년들의 사적인 모임 속에서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자연스럽게 실천공동체는 싹트게 되었다.

2) 결합기

결합기는 실천공동체의 형성 단계 중 두 번째 단계로서 실천공동체가 공식적으로 시작되어 자체적인 활동들을 꾸려 나가게 되는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의 활동은 전문가들의 시선으로 바라보았을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허술할 수 있으나 공동체의 결집을 이끌어내는 데 의미 있는 활동으로 기능한다. A 멘토링단은 결합기의 단계에서 함께 활동하는 청년들 사이의 관계와 신뢰를 형성하고자 노력했고, 공동의 가치관과 목표, 공동체 존재의 의의를 입증하기 위해 구성원과 외부 홍보를 위한 안내자료 등을 만들기도 했다. 이 시기 A 멘토링단의 목표와 존재의 의의 등을 설명하고자 노력했던 흔적들이 초기 안내자료 곳곳에 보이고 있었다. 다음의 문구는 관련 문서 자료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A 멘토링단은 “멘토와 멘티가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더불어 가다”라는 목적으로 갖고 (중략)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료 1, 1쪽 일부 발췌)

B 지역의 신도시들은 새로 지어진 초·중·고등학교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진로 및 진학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대학생 또는 사회인 멘토의 수를 확충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단체는 경기 지방의 초·중·고등학교 또는 공공 기관 등에 멘토 및 콘텐츠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멘토링단 프로그램을 설계 및 개발하여 지역의 멘토링 수요를 충족하고 그 활동을 활

성화시켜줄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료 3, 4쪽 일부 발췌)

A 멘토링단은 다양성, 교류, 상호발전이라는 세 가지의 점층적인 목표를 이상(理想)으로 삼고 활동합니다. 이는 A 멘토링단의 전반적인 운영 방향과 멘토들이 맨 처음 멘토링단에 들어와 ‘멘토서약서’에 선서하는 내용으로도 연결됩니다. (관련 문서 자료 3, 5쪽 일부 발췌)

결합기 단계에서 A 멘토링단은 청년들이 자신의 일상 속 크고 작은 고민들을 단체 내에서 공유하고, 서로 유사한 연령대와 상황에 속한 동료들이 공감하며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사실 현재 청년들은 소통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창구는 이미 다양하게 구축되어 있고, 자신이 원한다면 주도적으로 원하는 채널을 개설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도를 충분히 갖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만든 채널은 대부분 자신과 가장 가까운 관계의 누군가와와의 접촉이 아닌, 전혀 모르는 낯선 누군가와와의 소통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의 기회와 양적인 횟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질적으로 의미 있는 소통의 기회는 여전히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들은 A 멘토링단을 통해 질적으로 의미 있는 소통에 참여했던 경험, 그 소통에 참여하기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했던 시간과 경험을 언급했다. 이를 통해 해당 시기의 여타 활동, 모임과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이 갖는 차이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었다.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분야라는 게 그렇게 인기 있는 과는 아니었어요. (중략) 그럼에도 컴퓨터 쪽 정보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친구들이 한둘씩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이라고 해서 제가 ‘야, 컴퓨터가 별거 없어’라고 말을 해줄 순 없잖아요. (중략) 단지 한 명이어도 그 사람이 필요로 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자료도 찾아보고 그거에 맞게 PPT도 준비해보고 그 친구들한테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쪽으로 알아볼 수 있는 노트나 이런 걸 말해주려고도 했었고...” (참여자 C, 2022.6.26.)

“제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냥 준비된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랑 그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중략) 그거 외에 학과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홍보대사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교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하는 기회는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한 기회는 이 단체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었어요.” (참여자 D, 2022.6.4.)

A 멘토링단의 결합기 단계에서 청년들이 단체와 유대감 형성을 위해 스스로 상징을 부여하는 활동들을 주도적으로 수행했던 과정에서 상호작용의 질이 높아졌고, 창발적인 경험과 활동이 이루어졌다. 직업이나 진학을 돕기 위한 교육이 없었는데, 청년들이 고민하고 있는 지점들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상호작용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제가 20대를 거의 (이 단체와) 같이 보냈잖아요. (중략) 이걸 하면서 이제 지금쯤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사람을 만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제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었죠.” (참여자 G, 2022.6.26.)

“우리가 (중략) 같은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 이제 막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 비슷하니까 ‘넌 자소서 어떻게 썼냐’, ‘넌 회사 다녀니까 좀 봐줘’ 이렇게 했던 것도 봤었고요, 다른 사람들이 (중략)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었어요.” (참여자 H, 2022.6.26.)

실천공동체가 실질적으로 활동을 시작함으로써 그 안에서 창발되는 다양한 상호작용 양상은 청년들 각자에게 의미 있는 기억과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이 시기의 활동을 돌아보면서, 청년 정책 차원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실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이나 인프라, 소통 채널을 공식적으로 확보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처음 A 멘토링단이 시작되었던 시기에 공식적인 단체로 인정받기까지 겪었던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역 기반의 다른 실천공동체들은 이 부분에서 정책적 지원을 받는다면 더 크게 성장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가 있었다.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디 모였을 때 공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중략) 그런 공간 대여를 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거를 시설이나 기관에서 제공해줄 수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중략) 공공 공간 대여 뭐 이런 게 서울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뒷받침돼 있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참여자 H, 2022.6.26.)

“오프라인으로 (활동) 할 때는 장소고, 온라인으로 할 때 이런 플랫폼이 필요하죠. (중략) 제가 볼 때 가장 필요한 건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고 봐요.” (참여자 E, 2022.6.4.)

연구 참여자들의 설명을 통해 공간에 대한 지원이라는 것이, 단지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 확보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활동에 대한 청년들의 주도성과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모인다’라는 개념도 그 의미가 다양해지고 있었다.

실제로 연구 참여자와 연구진이 함께 심층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청년 정책이 공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 무엇일 까를 함께 논의하게 되었다. 심층 면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와 연구진이 의견을 모을 수 있었던 부분은 ‘청년을 모이게 한다’보다 ‘청년이 모이고 공동체 활동을 할 수 있는 넛지(nudge)로 온·오프라인 공간을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었다. 넛지(nudge)란 강압하지 않고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으로 사람들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게 유도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청년 카페, 청년 공간 같은 오프라인의 물리적 공간을 양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공간들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 어떤 전략으로 지역 청년의 참여를 유도할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처음에 멘토링 할 때 다른 학교들이라든지 교육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가 잘 되지가 않아서 그냥 거의 영업하듯이 멘토링을 진행했는데. (중략) 우리 멘토링이 좀 필요한 영역과 원활하게 이어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좀 담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참여자 H, 2022.6.26.)

“커넥트가 잘 되면 멘토링 기회가 많아질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어찌 됐건 우리가 아직까지도 발로 뛰어 연락하고 이래야 됐잖아요. 꼭 K중학교나 K고등학교가 아니어도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홍보한다거나...” (참여자 G, 2022.6.26.)

Wenger와 연구진(1956/2004)은 결합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공동체가 융합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동력이 실천공동체 내부적으로 누적되어 가는 것을 강조했다. A 멘토링단의 사례에서 동력은 청년들이 단체 활동을 적극 끝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경험, 그 과정에서 상호 유대감 형성을 위해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이야기했던 경험 등 단체 내의 공식적·비공식적 상호작용의 양상으로부터 누적되었다.

또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청년들의 실천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결합기 단계에서 공동체만의 활동을 실행할 수 있도록 유관 기관, 인프라, 소통 채널 등이 정책적 지원으로 공식화될 필요가 있었다. 실천공동체로서 그들의 가치를 두고 있는 활동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청년은 참여자를 넘어서 자신의 일상 속 어려움을 이 공간에서 함께 풀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청년 정책이 이 시기를 전략적으로 활성화시켜주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했다.

3) 성숙기

성숙기는 과도기를 거쳐 단체가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게 되는 시기로 이때 실천공동체의 주요 화두가 바뀌게 된다. 실천공동체의 결합기에서는 이것이 존재하고 활동해야 하는 정당성을 확보해 가는 것이 중요했다면, 성숙기에서는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구성원들이 유입되면서 벌어지는 양상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A 멘토링단의 경우 이 시기 특징은 단체 유지와 관련하여, 단체의 내·외부에서 여러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었고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단체의 방향을 재확립해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었다. 다음의 연구 참여자들의 설명을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멘토링단은 초창기 자신들이 하고 싶었던 활동들을 자유롭게 기획 및 활동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성숙기로 넘어오면서 주변 중·고등학교와의 교류가 활발해

지고, 기관 측 요구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행하는 활동을 하게 되면서 단체의 새로운 도전 과제에 맞닥뜨리게 되었다. 성숙기로 넘어오게 되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들의 활동이 노출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오해가 생기거나 갈등을 겪기도 했다.

“멘토링에 대한 주제 같은 게 초반에는 아무래도 멘토링단의 내부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아니면 어떤 주제로 멘토링을 이끌어가고 싶은 주제가 있는 반면, 학교에서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멘토링단에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바른 말만 해주고,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식으로 모티베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이미 딱 고정해 놓고, 그런 식으로 멘토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약간 갈등이 있지 않았나...” (참여자 A, 2022.6.29.)

또한, 활동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연령대가 점차 다양해지고, 경기도 지역을 벗어나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는 구성원들이 생기면서 이들의 실천공동체 참여와 활동을 어떻게 함께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부분은 A 멘토링단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의 양상과 다른, 실천공동체로서 다양한 구성원의 요구를 어떻게 융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우리들끼리는 좀 멀리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멘토들 간에 원활한 융합이나 교류가 제한적이라고 생각하긴 했어요. 그래서 근처 사는 사람들은 자주 만났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참여자 H, 2022.6.26.)

이러한 변화된 상황에 대해 A 멘토링단은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안내자료를 통해 활동 과정에서 어떤 유관 기관 및 관계자와 우리가 연관을 맺고 있는지 적극 설명했다. 또한, 공동체의 핵심 구성원이 다양한 소모임, 연간 정기 모임, 친목 모임 등 소속된 청년들 간 멘토링 및 관계 향상을 위한 활동을 기획하며 이를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했다. 다음과 같이 관련 문서 자료와 연구 참여자의 이야기를 통해 이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멘토링단은 주변 집단들과 유기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 멘토링단’, ‘학교 후배’, ‘학교 졸업생’, ‘학교 선생님’, ‘학교 교장/교감 선생님’. (관련 문서 자료 2, 2쪽 일부 발췌)

“A 멘토링단 안에서 취향에 맞는 여러 소모임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랑 멘토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게 했던 게 극복 방향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대학교 방학 시즌에 맞춰 1년에 두 번씩은 꼭 만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소모임 한다든지, MT나 아니면 짝 모임 같은 걸 한다든지 했었으니까.” (참여자 H, 2022.6.26.)

이러한 상황 속에서 A 멘토링단은 실천공동체로서 지속되기 위해 내·외부적으로 요구되는 역량을 찾고, 이를 강화하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을 전개했다. 이는 실천공동체가 성숙기에 맞닥뜨리게 되는 도전 과제로 작용하며 A 멘토링단이 안정적 운영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중요 화두를 단체 소속의 청년들에게 제공해주었다. 이 과정에서 연구 참여자들은 A 멘토링단의 처한 상황과 문제가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어려움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거라면 단체 대표가 모든 짐을 짊어지고 운영의 전적인 책임을 맡았던 거라고 보거든요.” (참여자 E, 2022.6.4.)

그리고 이 단계에 처해 있던 시기의 A 멘토링단에게 청년 정책적 측면의 지원이 있었다면 이 시기부터 운영비와 같은 구체적인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말해주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결함기까지는 실천공동체로서 하나의 단체가 자리매김하고 단체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기였다면, 성숙기부터는 안정적 운영을 이끄는 데 요구되는 비용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청년 정책이 좀 개개인한테 비전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지급해준다거나 이런 거는 많은데, 단체를 만들어서 꾸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거의. (중략) 어찌 됐건 우리가 멘토링을 좀 하더라도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참여자 G, 2022.6.26.)

성숙기에서는 새로운 구성원이 공동체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새로 등장한 요 구사항을 모든 구성원이 인지하고 함께 상호작용하며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 는 경험이 필요하다(Wenger et al. 1956/2004). A 멘토링단 역시 성숙기 단계에서 다 양한 청년들이 공동체로 유입되며 겪게 된 어려움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시 도들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시기 A 멘토링단에게 도전적이었던 과제 해결을 위해 청년 정책적 차원에서 운영비 등 활동 비용에 관한 지원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관리기

관리기는 실천공동체가 성장해오는 과정에서 함께 경험과 경력을 쌓게 된 내부 구 성원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주도해가며, 공동체의 역량을 관리하는 것에 집중하는 단계 이다. A 멘토링단의 경우, 비교적 오랜 시간 활동을 지속했으며, 초창기부터 단체가 갖 고 있던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성숙한 구성원이 각자 다양성을 강화하게 되면서, 공동체의 다양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인적 자원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저는 좀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봐서, 저만큼 같은 나이에 비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 본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봐요. 대학을 꾸준히 다녔다든가, 아르바이트를 해봤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저는 그럴 때 다양하게 외국에도 나가보고, 일도 해보고, 여러 가지 많 이 해봐서... (중략) 멘토링단의 다양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존재 가치를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학력자라든가 아니면 어느 학교를 다닌다든가 이런 부분 에서 멘토링에 커트라인이 있었다면 그런 기회 자체도 없었겠죠.” (참여자 A, 2022.6.29.)

“물론 대부분 듣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은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아니면 ‘대기업에 들어가면 어떤 분위기로 일을 하느냐’ 이런 부분으로서 많이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중략) 근데 제가 전해주고 싶은 것들은 저도 근무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쪽 일하면서 누군가와 대화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것들을 바꾸게 된 계기들이 몇 개씩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이야기들 자체가 일하는 데 있어서 도움 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어딘가를 준비하거나 가는 과정에서 그 말이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은 안 되거든요. 분명 도움이 될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까지 경험했고, 제가 생각해서 이게 옳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전달해주고 싶은 거죠.” (참여자 C, 2022.6.26.)

“요즘 생각보다 대학교 안 가고 공무원 준비한 애들이 많아서 그런 거에 대한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해주면 좋지 않을까요? (중략) 직업이나 자기소개서 쪽으로 멘토링을 하고 싶어요. 지금도 언제든 준비돼 있어요.” (참여자 F, 2022.6.26.)

관리기 단계에서 A 멘토링단의 성숙한 구성원들은 다시 다양성에 집중하게 되었다. A 멘토링단은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 경험 등 청년의 다양한 시행착오를 긍정하고 각자 나름의 해법을 갖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이야기 공유를 강조하기 시작했다. 2021년 A 멘토링단의 SNS 홍보 채널을 통해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와 같은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21 10기 신입 멘토 모집. (중략) 이런 분들은 꼭 신청해주세요! 자신만의 인생 스토리를 멘토링하고 싶은 분. 다른 사람 앞에서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분. 나의 전공 & 학과를 알리고 싶은 분. 후배 및 선배와 함께하고 싶은 분. (관련 문서 자료 4, 2쪽 일부 발췌)

참여자 E는 이 부분을 ‘대의’라고 표현했다. 그는 청년의 다양성이 존중되고 각자 나름의 일리 있는 삶들이 긍정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청년의 다양한 삶을 긍정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실천적 행위들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고 인식하기 때문에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활동을 지속해올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건 아닌데 각자가 처음에 갖고 있었던 그 대의에 따라서 너무 참여를 열심히 하려는 그 마인드를 갖고 있다는 거죠.” (참여자 E, 2022.6.4.)

더 나아가, 이는 A 멘토링단이 실천공동체로서 지속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독특한

특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오프라인 멘토링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들 각자 일상에 집중하면서 동시에 A 멘토링단의 비대면 온라인 멘토링 활동, 영화 소모임 활동, 독서 소모임 활동 등 한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 연구 참여자는 다음과 같이 ‘결속감’, ‘확신’이라는 표현으로 A 멘토링단이 지속되는 이유를 설명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특정 지역에 대한 청소년기의 추억, 이를 서로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또래 청년들과의 소통 등 복합적인 양상이 있기에 A 멘토링단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았다.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멘토링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더라도 결속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략)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고 거기에 따라 역할이 달라짐에 따라서 또 새로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언제든 모일 수 있겠다라는 결속감과 확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참여자 H, 2022.6.26.)

관리기의 상황에서 A 멘토링단에게 필요한 것은 안정적 운영 체계를 갖고 A 멘토링단이 오랜 시간 구축해온 경험에 기반한 전문성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인증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지속적으로 단체의 입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극복하고 현재 A 멘토링단에 소속된 청년들의 상황에 적합한 활동의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요점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제가 얼마 전 봤던 프로그램은 (중략) 조건이 그거였어요. 제가 맡은 학생들과 일주일에 3번 이상 엄청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기록을 남겨야 되고... (중략) 저는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지원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결국은 안 했었어요. 뭔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그걸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 (참여자 D, 2022.6.4.)

Wenger와 연구진(1956/2004)에 따르면, 관리기에서 실천공동체는 실천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요구되는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이고, 공동체의 초점을 확장하여 새로운 시각과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A 멘토링단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실천공동체를 유지해오는 데 있어

서 앞으로 지역 기반의 실천공동체로서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자 하는지 모색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에 처해 있는 실천공동체에게는 오히려 과거 이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양적 성과들을 검토하고 정리하여 공동체가 더 나은 방향으로 지속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모색하는 데 청년 정책 지원에서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5) 변형기

변형기는 실천공동체가 새로운 구성원 간 관계 상황 속에서 활동 범위와 내용을 변형하게 되고, 이로 인해 운영상의 난관에 봉착하는 상황 및 극복되는 제2의 과도기적 단계를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일반적인 많은 조직들이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이 부분에서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이것이 최근 고립·단절·우울과 같은 개념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사회 여러 영역의 고질적 문제로 많이 논의되고 있으며, 청년의 영역 역시 그러하다.

A 멘토링단의 경우, 코로나19는 변형기적 단계를 가져오는 데 있어서 큰 사건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대면 활동에 대한 부분이 제약을 넘어 금지되는 상황까지 가게 되면서, 단체 유대감 형성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했다. 공동체 구성원들 간 물리적 거리가 멀어지고 활동이 줄어들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우려의 의견을 내비치기도 했다.

“코로나 아닐까요? 리는 활동을 해야 되는데 자꾸 활동을 하는 게 점점 어려워지니까. 대형 단체 멘토링이나 이런 것들도 활동을 한 번씩 해야 좋은데 그런 게 좀 더 어려워지니까요.” (참여자 G, 2022.6.26.)

“코로나 때문에 자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 서로 떨어져 있는 거죠.” (참여자 D, 2022.6.4.)

“사실 한 2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부터 활동도 많이 없어진 것 있었지만.” (참여자 E, 2022.6.4.)

그러나 ‘위기는 곧 기회’라는 격언처럼, 청년들은 그럼에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었다. 참여자 B는 A 멘토링단이 청소년기의 학생들을 위한 멘토링도 가능하겠지만, 단체와 함께 성장한 청년들이 사회인으로 거듭나게 되면서 청년들 간의 멘토링도 필요함을 언급해주었다.

“솔직히 (중·고등) 학생이 아니더라도 그냥 멘토들끼리도 어떻게 보면 멘토링이 가능한 거 같아요. 그런 다양한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중략) 계속 기회가 있어야 사람들도 활성화가 되고, 그 안에서 또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맺고 더 친해지고, 더 인프라가 좀 커지니까.” (참여자 B, 2022.6.29.)

관련하여, 참여자 D도 참여자 B의 의견과 유사한 이야기를 해주었다. 청년이 주도로 운영하는 실천공동체 속에서 구성원들 간 멘토링 활동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년 개인이 아직 겪어보지 못한 영역을 비슷한 또래의 청년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미처 생각해보지 못한 방향을 함께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사실 경기도나 나라에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계속 이런 멘토링 활동이 활성화됐으면 좋겠어요. 이미 겪어본 사람들과 아직 겪지 못한 사람들을 서로 엮어주는 그런 활동들을 지원해서 자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참여자 D, 2022.6.4.)

변형기에서 실천공동체는 잠복기나 성장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종결 단계로 급선회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A 멘토링단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통해 잠복기나 성장 단계로 되돌아가거나 종결될 수도 있는 극단적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천공동체에 주어지는 도전 과제는 그 단체의 과거 운영 이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는 한편, 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도출해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 부분과 관련하여, 참여자 F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주었다.

“(이 단체가) 없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지면 좀 슬플 것 같아요. 제가 열심히

활동했고 좋아했던 단체이거든요. (앞으로 우리 단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잘 탐색해서) 계속 명목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여자 F, 2022.6.26.)

Wenger와 연구진(1956/2004)은 변형기에서 새로운 구성원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된 상황과 이들의 관심 분야가 너무 다양해지기 때문에 실천공동체가 어느 한쪽으로 이를 수렴하지 못할 때, 지금까지 공동체를 결집시켰던 공동의 가치가 와해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고려할 때, 청년 정책은 청년 주도의 실천공동체 활동이 비교적 장기간 지속되고 있을 때, 해당 단체가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새로운 활동에 관한 홍보 등을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

2. A 멘토링단 사례에서 이루어진 실천 경험에 따른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

두 번째 연구 결과로서 A 멘토링단 사례를 통해 본 청년들의 정체성 변화의 특징은 다음과 같은 <표 9>로 그 내용을 범주화할 수 있었다. 우선 문헌 분석 및 이론적 배경으로 작성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체성의 하위 요인을 자신에 대한 재인식, 성장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로 구분했다. 다음으로 자료 분석을 토대로 각 하위요인별 특징을 정의했다. 마지막으로 각 하위요인을 기준으로 개방 코딩의 범주화 결과를 서술했다.

<표 9> A 멘토링단 사례에서 도출한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 범주화 결과

정체성의 하위요인	특징	범주화 내용
자신에 대한 재인식	실천공동체 참여 과정에서 개인의 내면 차원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자극을 감각함	실천공동체라는 경험의 장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고유한 특성을 찾게 되다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한 결핍이나 꿈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에서 존재 가치를 느끼다

정체성의 하위요인	특징	범주화 내용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적 안목을 형성함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서의 자신을 탐구하다
		적절한 난도의 사회 활동 속에서 자신과 사회를 잇는 중간다리를 형성하다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	공동체 구성원에게 필요한 역량을 함양하고, 다른 영역의 사회 활동으로의 참여 의지를 갖게 됨	실천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다
		공식과 비공식 사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편하게 형성하다
		다른 영역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다

1) 자신에 대한 재인식

A 멘토링단의 사례로 탐색한 청년의 장기간 실천공동체 활동 경험이 그의 정체성 변화에 준 첫 번째 측면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다시금 하게 된다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앞서 연구 결과 1에서 실천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단계마다 놓여 있었던 다양한 경험은 청년이 한 명의 성인 학습자로 기능하게 해주었고, 우선적으로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자신에 대한 재인식의 영역에 대한 범주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1) 실천공동체라는 경험의 장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고유한 특성을 찾게 되다

A 멘토링단은 청년들을 묶는 실천공동체로 작용하면서, 다양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복합적인 경험들을 창출해낼 수 있게 해주었다. 단체에서 활동했던 장기간의 기간 동안 연구 참여자들은 각각 다양한 상호작용과 경험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느꼈던 인상 깊었던 순간은 각각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그 경험을 토대로 스스로를 좀 더 깊게 이해해볼 수 있었으며, 그 결과로 자신만의 특징을 탐색했다.

구체적으로 첫째, A 멘토링단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이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인 다

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면서 20대 초·중반 시기의 주된 고민이기도 한 자신의 전공이나 진로에 관한 진지한 고민을 공유했다는 것이었다. 현재의 자신과 가장 밀접히 연관된 고민들을 유사한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A 멘토링단 외부에서 바라본 청년들은 유사한 또래의 구성원이었으나 그 안에서 개별 구성원들은 나이에 따라 각자 다양한 고민을 안고 있었다. 누군가는 자신의 고민을 먼저 해봤던 사람이 되기도 했고, 또 누군가는 그 고민을 극복한 사람이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청년들은 개별적으로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같이 활동하고 있는 다른 청년들과 의미 있는 요소로 기능하였다.

“저도 멘토링 하면서 느낀 건데 이게 나 혼자만 찾아보는 거랑 남들한테 같이 얘기하다 공유받는 정보랑 양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니까 어찌 됐건 제가 배는 노력을 해서 찾아봐야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고, 비슷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라 같이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움이 받는 거 많잖아요.” (참여자 G, 2022.6.26.)

“처음에 모였을 때는 사실 애초에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모르고 만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이 이 활동하면서 그 사람들의 인생이 그냥 하나의 인적 자원 가치 옆에 있게 되는 거죠. 인간관계처럼.” (참여자 E, 2022.6.4.)

“우리 멘토링단 사람들은 적어도 지위를 두 개씩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는 멘토링단 단원이라는 거. 디폴트 값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각자 분야의 일원이라는 거. 서로 다른 전공이기도 하고, 서로 다른 대학교도 있고, 대학원생도 있고 이랬었으니까. (중략) 각자 각 분야의 일원으로서 갖고 있는 그 영향력을 다른 사람한테 행사할 때에는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거를 좀 많이 느꼈어요. (중략) 우리 단체에서 법 분야를 전공하는 건 나밖에 없었기도 했고, 내가 스스로 공부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은 많이 얘기를 했었거든요.” (참여자 E, 2022.8.6.)

이와 같은 상호작용은 연구 참여자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한 단서를 제공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통상적으로 요구해왔던, 정해진 시기에 달성해야 할 과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 맞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나갈 수

있게 해주었다.

“다른 멘토들을 통해서 제가 또 새롭게 배우는 거, 그게 또 하나의 개인 발전을 위한 것도 있었다고 생각해요. (중략) 다른 전공이지만 저보다 선배인 사람들이 본인의 진로 설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고민했고, 어떻게 방향을 구체적으로 잡아 나갔으며, 겪었던 어려움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게 이 멘토링단에서 생각했던 비전이 아닐까요?” (참여자 E, 2022.6.4.)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좀 정해진 스탠다드가 있잖아요. 이 나이에는 어떤 걸 해야 되고, 이 시기쯤에는 무언가를 성취해야 되고, 어떤 게 좀 갖춰져 있어야 되고 저는 그런 길을 고스란히 가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나에 대한 잣대가 약간 흔들릴 법도 했었는데, 오히려 그 기회를 계기로 제 자신의 니즈를 좀 파악할 수 있었고, 제 생각을 좀 정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음으로써 이제 좀 더 성취감,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A, 2022.8.6.)

둘째, 성인 학습자로서 청년은 A 멘토링단의 활동 과정 속에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넘나들며 스스로를 심층 이해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본인의 장점과 단점, 개선해야 할 점을 찾아 더 나은 자신이 되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실천하고자 노력했다. 예를 들어, 참여자 H는 구체적인 멘토링 프로그램 활동 과정에서 과거 청소년기에 자신이 학생으로서 수혜받았던 유사 프로그램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며, 그때 자신이 받았던 것과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것을 비교했을 때 아쉬운 점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그때는 그분들이 20대 초반이었으니까, 그 또래가 고등학생들한테 멘토링을 받았던 게 저는 그때가 처음이기도 하고, 또 유일하게도 해서 되게 인상이 깊었는데, 계속 생각을 했었거든요. 나중에 이 분은 뭐 하고 지낼까, 이제 대학생 되면 어떤 걸 할까, 나도 나중에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분한테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중학교에서 멘토링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비교가 되더라고요. 나는 어떻게 기억이 될까, 그리고 그 영향이 내가 예전에 받았던 것처럼 긍정적일까? 또는 부정적일 게 있었으면은 뭐가 있을까?” (참여자 H, 2022.6.26.)

더 나아가,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A 멘토링단에서의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 및 다른 청년들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문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고, 그 상황과 자신의 단점이 연관되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자신의 단점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인지하게 되면서, 이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을 독서 모임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하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일상 생활 방식도 함께 변화함을 느낄 수 있었다.

“다 통틀어서 저한테 생긴 가장 큰 변화라고 하면 다른 사람 얘기를 그나마 많이 듣고 생각을 제가 다르게 하려고 생각하는 버릇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좀 생겼어요.” (참여자 E, 2022.6.4.)

“제가 갖고 있던 단점 중에 제일 큰 게 ‘내 말이 맞다’라는 식의 우기는 게 있었는데, 독서 모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 같고... (중략) 생활 방식이 좀 달라지는 것도 있었죠.” (참여자 G, 2022.6.26.)

“멘토링단 활동 전후로 일단 사교성도 많이 좋아졌고, 뭔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도 내가 뭔가를 누군가한테 알려준다 그런 느낌도 거부감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주위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걸 알게 되기도 하고 대학교를 다니면 과 친구들만 만나다 보니까 그쪽으로밖에 폭이 좁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고의 폭이 넓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중략) 원래 성격이라면 저를 밖으로 안 내보내는데, 의도적으로 좀 노출을 시키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했죠.” (참여자 B, 2022.6.29.)

셋째, 연구 참여자들은 자신이 현재 주로 소속되어 있는 전공 또는 진로에 관한 자부심을 계기로, 자신의 고유한 특징을 강화할 수 있었다.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성공 또는 실패 경험 등 다양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자신이 현재 주로 활동하고 있는 영역에 대한 자신감과 더 나은 변화를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게 해주었다.

“우리가 멘토링을 한다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대학교가 됐건, 지식이 됐건, 경험이 됐건,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나눔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대학교라든지, 아니면 공부하고 있는 학문 분야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이 좀 더 커졌던 것 같아요. (중략)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커졌다는 게 제일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H, 2022.6.26.)

“멘토링을 잘하기 위해 뭔가 다른 것들을 많이 했어요. 발표 동아리도 했었고, 여러 가지 교육, 학교에서 교육 쪽 수업도 들었고, 그러면서 제 지식도 많이 쌓고 했어요. 발표 동아리도 하고, 교내 대회에서 상도 받고 하면서 제 취업과 관련한 커리어는 아니지만, 제 삶의 다양성이 좀 많아졌어요. (중략) 가치관도 많이 바뀌었고, 집에만 있던 제가 밖에 나가게 되고, 뭔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 자신이 많이 바뀌었죠.” (참여자 B, 2022.8.6.)

실천공동체는 청년으로 하여금 자신을 보다 자세히 이해해볼 수 있게 해주는 다양한 기회와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청년이 자신의 장점과 단점, 보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점 등을 스스로 깨닫고 실천해 나가는 과정은 개인의 정체성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험이 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필요한 환경에 유입될 수 있게 해주었고, 자신의 내면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를 형성하게 해주었다.

(2)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한 결핍이나 꿈을 긍정적으로 승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A 멘토링단이라는 실천공동체에서의 활동은 자신의 과거 경험 중에서도 실질적인 자신의 역량 부족 등으로 인해 이루지 못했던 분야, 꿈에 대해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계기로 작용했다. 현재 많은 청년들이 저성장 시대로 인해 자발적으로 포기하거나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상황과 견주어볼 때, 이 부분에 대한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실천공동체로서의 청년 모임 지원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는 것과도 같았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청소년기 초·중·고등학교 생활을 통해 무수히 많은 평가에 노출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하

는 진로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꿈을 포기하는 등 실패의 경험을 갖게 되기도 했다. 그런 이들에게 있어서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은 결핍과 꿈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원래 꿈은 교사였어요. (중략) 뭔가를 알려주거나 가르쳐주고 이제 그런 사람이 누군가한테 영향이 된다는 거를 일단 경험해봤다고 해야 할까요?” (참여자 C, 2022.6.26.)

“부모님의 영향이 컸죠. 부모님이 두 분 다 교육계 쪽에서 일하셔서 어릴 때부터 뭔가를 가르친다는 거에 대해 흥미를 많이 느꼈고, 애들한테도 뭔가를 가르쳐줄 때 재밌다는 거를 많이 느껴서 중·고등학교 때까지 이제 그런 꿈을 꿔요. 교사의 꿈을 꿔는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알고 그러던 와중에 이 멘토링단을 알게 돼서 여차 저차 해서 이제 재수하고 이렇게 마치고 들어갔죠.” (참여자 B, 2022.6.29.)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을 통해 청년들은 다시금 자신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생산적으로 모색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C는 멘토링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단체를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활동하는 청년들이 선후배의 관계에 있었고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다양한 경험과 배경을 지닌 청년들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계기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다.

“애초에 멘토링이라는 접근 자체가 처음에는 선후배 간의 소통이었어요. (중략) 더 깊게 파고 들어간다면 저 개인에 있어서도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발전의 의미도 있고.” (참여자 C, 2022.6.26.)

관련하여, 참여자 A는 A 멘토링단에서의 여러 활동에 참여하면서, 학생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멘토로도 성장할 수 있었지만, 동시에 청년으로서 자신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참여자 A에게 있어서 학생들이나 A 멘토링단에서 함께하고 있는 청년들과 소통하는 과정은 끊임 없이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상황으로 인식되었다. 자신이 생각해본 적 없었던, 또는 기존에는 당연히 여겼던 부분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나오게 되면, 여기에 답하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은 멘토이자 청년으로서 한 개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

“정작 나 자신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해야 나에게 잘 맞을까를 엄청 고민을 하면서 스스로에게도 고민을 하고 되돌아보고, 내 적성을 찾는 데 큰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다양한 질문을 또 받게 되잖아요. 학생들이랑. 그러다 보니까 질문을 받으면서 이런 질문은 예상하지 못했는데, 대답을 하고 하면서 생각을 좀 더 정리를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깊게 생각해본 적이 없던 주제나 질문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게 됨으로써 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스스로에게도. 왜냐하면 멘토의 경우에도 우리는 아직 성장을 하고 있는 청년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갖고 생각을 정리하고 멘토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멘토로서 성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A, 2022.6.29.)

“청년으로서 누군가의 앞에 나서서 누군가 인생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고 봐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듣기만 하는 강연식·강의식 교육 형태가 많기 때문에 20대 초·중반의 나이에 누군가한테 그렇게 강연·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멘토링을 준비하면서 본인의 생각을 더 정리할 수 있고 자신이 그동안 걸어왔던, 아니면 생각했던 방향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볼 수 있고, 그 생각을 정리할 수 있고,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들려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이제 내 자신에게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시간이 되고. 왜냐하면 멘토단 활동이 아닌 이상은 자기 전공 공부, 교양 공부, 대외 활동, 아니면 자격증 등 본인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고, 거의 쫓기듯이 미션 컴플릿 이런 식으로 게임처럼 빨리빨리 이제 인생을 좀 살아야 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지 않나 싶어요.” (참여자 A, 2022.6.29.)

연구 참여자들은 각자 나름의 근거를 가진 시선으로 사회와 자신의 주변을 인식하고 있었다. 여기에는 자신에 대한 인식도 포함되었다. 자신에 대한 인식은 부분적으로 긍정 또는 부정의 속성을 갖고 있었다. 그 중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개인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었다. 이와 같은 한계 상황에 대해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은 청년이 자신의 부정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승화시

킬 수 있는 실험 공간이 되어주었다. 실천공동체 활동의 성공 유무를 떠나 자신이 구성원으로 활동하는 과정과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사람과 적극 소통하는 과정이 개인의 정체성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었다.

(3)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에서 존재 가치를 느끼다

질적 자료의 분석을 통해 살펴본, 배움의 주체로서 청년에게 울림을 줄 수 있는 경험은 질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었다. 봉사를 수행했다, 활동을 했다 같은 일차원적인 접근에 연구 참여자들은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 상황을 구체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바라보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의도에 부합하게 설명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일정 시간 이상의 노력을 기울였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A 멘토링단의 일원이 되고, 스스로 멘토링을 하고자 하는 기회를 만들어내며, 최종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 상황의 경험이라는 일련의 과정이 연구 참여자들에게 의미 있는 경험으로 다가가게 되었다.

“학생들 앞에서 대학생인 자신이 이야기를 하면 모든 인원이 귀를 기울여줄 것이라는 자만을 갖고 첫 멘토링을 진행했던 날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기대한 것보다 적은 호응에 당황했고, 걱정한 것보다 훨씬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진땀을 뺐던 그날 이후로 멘토링은 절대 가볍게 볼 것이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앞으로도 활동을 이어나가려면 견고한 체계와 멘토링을 진행하는 데 있어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한, 통제가 되지 않는 아이들 속에서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소수의 학생들이 존재한다는 그 뿌듯함도 함께 느낄 수 있었어요.” (참여자 G, 2022.8.10.)

그리고 의미 있는 경험의 성과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던, 자신의 도움의 수혜를 받았던 이들의 피드백을 통해 완성되었다. 멘토링에 참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 한 두 명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을지라도 이것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활동을 지속할 이유가 될 정도로 큰 가치를 부여해주었다.

“그 학생이 성신여대 사회교육과 지원한 친구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면접관 역할로 도와주러 갔었는데, 결국은 그 친구가 대학에 합격했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멘토링단 하기를 진짜 잘했다고 느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교육과 멘토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도와줄 수 있었구나, 존재 가치가 있었구나 제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중략) 그때 그 친구한테는 내가 도움을 줬다는 결과물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어요. (중략) 그런데 그 친구는 바로 그 결과를 눈앞에서 볼 수 있었으니까 기억에 남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D, 2022.6.4.)

“고등학교나 중학교 가서 제가 애들한테 자기소개서 알려주는 것도 좋았고, 개네가 생각보다 제 말을 잘 들어주는 것 같아서 참 좋았어요. 제가 따로 자기소개서 알려줄 때도 애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고, 고맙다고 해줘서 뿌듯하고 좋았거든요. (중략) 제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을 때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존재 가치라는 걸 느꼈죠. 제가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 (참여자 F, 2022.6.26.)

“다른 사람한테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재미있었어요. 동기부여를 받기도 하다가 동기부여를 줄 수도 있구나. 동기부여 경험을 부여했다는 거. 그리고 내가 받고 싶었던 입시 방향에 대한 어떤 조언이나 그런 것들을 해줌으로 인해서 내가 평소 바라왔던 거를 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존재 가치를 확인했다고 생각했어요.” (참여자 H, 2022.6.26.)

여기서 A 멘토링단의 사례를 통해 포착한 맥락은 연구 참여자들이 이러한 활동에 큰 가치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그 시기가 20대 초·중반에 집중되었다는 점이었다. 구체적으로 정규 교육 과정인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청소년기를 지나, 청년으로 갑자기 사회에 내던져질 때 이들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혼란을 겪었다. 그 상황에서 A 멘토링단의 활동은 실천공동체로서 일정한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으며, 이 안에서의 여러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찾아갈 수 있게 해주었다.

“느꼈던 거는 그전까지는 고등학생이었으니까 내가 그냥 공부하는 게 사실 나만을 위한 일이었는데, 20살 넘어서 다른 사람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되었고 그걸 처음

으로 해봤던 것이기 때문에 그때 좀 뜻 깊었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내가 이걸 계속 이어나가면 더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참여자 H, 2022.8.6.)

“학생들 앞에서 강연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꽤나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고, 거기서 누군가 도움을 얻는다면 더 큰 성취를 느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참여자 D, 2022.8.10.)

연구 참여자들이 자신의 내면을 재인식하고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경험이란 자신이 스스로 일정 부분 노력하고 기여할 수 있는 질적인 측면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물론 양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주제로 경험에 접근할 수 있는 풀(pool) 자체를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겠으나, 경험이 단지 참여를 위한 참여가 되지 않고 지역사회로의 연계성을 갖고 청년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 질적 접근도 함께 고려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연구 참여자들은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의 내면적인 변화에 그치지 않고, 성찰을 통해 주변 사람과 지역사회 등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구조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다.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관계적 차원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은 일상 속 자신이 행동해야 할 방향과 기준에 대한 변화로 연결되었다. 타인과 지역사회 등 자신과 가장 가까워서 관계 맺고 있는 자원들에 대해 다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또한, 실천공동체를 통한 활동을 통해 연구 참여자들은 예습 문제처럼, 본격적인 사회 활동에 앞서서 적절한 난도로 도전해볼 만한 사회적 실천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범주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었다.

- (1)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서의 자신을 탐구하다

A 멘토링단은 실천공동체로서 청년들이 함께 상호작용하는 공간이자, 활동을 통해

만나게 되는 다양한 관계자들이자, 타인과 만날 수 있는 하나의 공식적 경로가 되었다. 공식적 경로 중 하나는 일차적으로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과 학생들이 만나는 것이었다. A 멘토링단은 주로 중·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멘토링 프로그램을 했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학생들과 소통하는 과정을 통해 학생들에 대해 이해함으로써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었다.

“어른이 되어 가면 갈수록 좀 생각의 폭이 좁아지잖아요. 근데 학생들을 만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사고의 폭이 넓어지는 거 같아요.” (참여자 B, 2022.8.6.)

연구 참여자들이 교류했던 2차 대상은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동료 구성원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동료 구성원으로서 비슷한 연령대의 청년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는 경험을 배움과 긍정적으로 연결 지어 설명했다. 그들이 처음 단체 활동에 참여했던 동기에서는 동료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 주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A 멘토링단을 통해 우연히 만난 사이였는데, 소통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전공·진로를 고민하는 청년이 있다는 사실에 흥미를 느꼈고 이를 간접적인 경험으로 보기도 했다. 이러한 흥미는 같은 또래이지만 자신과 다른 타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는 즐거움으로 연결되었다.

“사람들을 꾸준히 만날 수 있는 것도 있고, 각자의 분야가 다르더라도 다른 학교나 다른 전공에 대한 문화 같은 거나 아니면 시스템 같은 것들도 공유할 수 있고, 제가 경험을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참여자 C, 2022.6.26.)

“활동하면서 재미있었던 건 (중략) 저희 멘토들끼리는 서로 모르던 사람들이 이 단체에서 활동하고 알게 되면서 더 가까운 관계가 되기도 하니까 좋았던 것도 있어요. 저의 전공 말고 다른 전공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다른 경험도 들을 수 있고, 그런 게 좋았어요.” (참여자 B, 2022.8.6.)

한편으로는 멘토링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접하게 된 교육 기관 쪽 관계자와의 상호작용 과정에 대해 인상깊어 했던 연구 참여자가 있었다. 참여자 A는 멘토링 활

동을 하는 과정에서 참관하던 선생님에게 우연히 피드백을 받았던 경험을 말해주었다. 이때의 경험은 자신이 당연시했던 가치관과 이야기에 대해 선생님으로부터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준 것이었다.

“멘토링단에서 제가 한 번 선생님한테 지적받은 적이 있는데, ‘너무 성적에 연연하지 말고, 너무 입시에 고민하지 말고, 네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고민해보고, 네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재수를 고민해도 좋고,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을 해봐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는데 그때 선생님이 교실에 같이 있었거든요. 제 멘토링이 다 끝나고 ‘그런 이야기는 학생들한테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피드백을 받았었어요. 그때 자기 통찰이라기보다는 저의 내적 갈등, 과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들, 도움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멘토로서 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사회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야 할 내용을 보편적인 용어를 얘기하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참여자 A, 2022.6.29.)

참여자 A는 선생님의 피드백에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이어서 자신이 삶을 바라보는 관점과 선생님의 의견을 비교하며 무엇이 옳은지 심사숙고하게 되었다. 이 과정은 가장 가까운 사회적 관계로서의 타인과 소통하며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을 재검토해보는 성찰의 계기로 작용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참여자 A는 자신의 가치관이 사회 구조적 관점에서 어떠한 의미를 갖는가를 고민해볼 수 있었다.

관련하여, 참여자 E는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서 자신의 가치관을 고찰했던 경험을 ‘구조적인 사고’로 표현하기도 했다. 그는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동료, 단체, 학생, 외부 기관 관계자 등 다양한 입장을 고려하게 되었다. 이것은 같은 성격의 사회 활동을 하더라도 개인이 단독으로 할 때와 특정 실천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수행할 때의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개인으로 활동할 때에는 굳이 고려하지 않아도 됐던 지점들이 공동체의 구성원이 되었을 때 고민이 필요한 지점으로 작용한 것이다.

“한 가지 좀 다르게 생각하는 거는 구조적인 사고를 좀 증진시킨 게 약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전에 활동 같은 걸 한다고 그러면 내 생각, 상대방의 생각 정도인데 이 활동을 하면 저하고 상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대하는 동료도 있고 단체의 입장도 있

좋아요. (중략)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하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고가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냥 개인으로서 맡은 일만 열심히 잘하고 그냥 그것만 잘하는 게 아니라 집단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여자 E, 2022.8.6.)

이처럼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 자신과 외부 세계 간의 관계를 인식하는 것은 타인에게 자신의 생각과 이야기를 올바르게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경험을 제공해주었다. A 멘토링단에서의 경험은 이후 참여자 G의 설명과 같이, 다른 영역에서의 유사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멘토링 경험 덕분에 발표 준비나 타인 앞에서 스스로의 이야기를 해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도 가닥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대학교에서 과제 발표를 할 때나 다른 동아리 활동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발표할 때 멘토링 경험이 도움이 많이 됐어요. 20대 초반에 멘토링 경험을 하고, 중반 즈음엔 독서 모임과 같은 소모임을 했던 경험이 저에게 사람을 만나거나 가치와 경험을 공유하는 법에 대한 큰 줄기를 심어줬어요.” (참여자 G, 2022.8.10.)

표면적으로 보았을 때, 청년 개인이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은 일상 속에서도 무수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활동들과 A 멘토링단을 통한 활동의 차이는 자신을 위한 활동에서 더 나아가 자신이 소속된 단체와 이를 수혜받는 타인, 유관 기관의 관계성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었다. 연구 참여자들은 타인과 함께하는 삶에 대한 연습을 무수한 맥락 속에서 다양하게 실천해볼 수 있었다.

(2) 적절한 난도의 사회 활동 속에서 자신과 사회를 잇는 중간다리를 형성하다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년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지칭하지만, 이 나이대에서도 청년은 다양한 속성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를 막 끝마친 20대 초반의 청년들은 사회로 나오게 되면서 외부 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은 많아졌지만 어떤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을지 막연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 해당되었던 참여자 H는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이 20대 초반 자신의 상황과 역량을 고려했을 때 적절한 난도

를 가진 사회 활동으로 보였다고 말해주었다.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느라 시간도 없었는데, 제가 원하는 것도 있고 사실 시간이 없다 보니 앞으로 대학교 때 어떻게 살겠다는 유의미한 계획을 세울 수도 없었고, 정보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대학교 오면서 시간도 생기고,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참여자 H, 2022.8.6.)

이 부분에 대해 참여자 H는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이 대학교에서 하던 과제, 팀 활동과 유사한 듯하면서도 많이 달랐다고 부연 설명했다. 학교에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는 활동은 익숙한 환경 요소인 교수자와 동료 학생들, 교실로 이루어지는데,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이 부분이 A 멘토링에서 자신이 활동하면서 만들어냈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기서 받게 된 어떤 성과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면, 또 어떻게 보면 K중학교에서 했던 멘토링 활동은 제가 저를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완전 생으로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처음으로 했던 어떤 발표 같은 형식이었는데, 그전까지는 그냥 대학교 과제, 조별 과제에서 발표하는 식으로밖에 안 해봤죠. 근데 이제 그런 활동을 어떻게 보면 공적으로 처음 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보는 게 생각보다 재밌다고 느껴졌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좀 사라졌어요.” (참여자 H, 2022.8.6.)

참여자 H의 설명에 비추어본다면, 비교적 사회 활동의 참여에 친숙하지 않고 이를 부담으로 여기는 청년들에게 있어서 실천공동체를 통한 활동은 적절한 난도의 사회 활동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서 ‘적절한’이란 청년으로 하여금 사회로의 진입과 활동을 이끄는 데 있어서 실천공동체 기반의 활동이 중간다리가 되어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실천공동체 내에서의 활동은 자신이 부족하더라도 다른 구성원의 도움을 받아 활동을 함께 완수해 나갈 수 있는 보조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적절한 난도’의 활동을 해내는 성공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20대 초반에 얻을 수 있는 패

괜찮은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는 활동이나 어떤 일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첫 출발이 좋았고, 그 경험을 쌓게 해줬던 게 A 멘토링단이었어요.” (참여자 H, 2022.8.6.)

이와 관련하여, 참여자 H의 설명에 대해 만약 졸업한 고등학교에서 예전에 알고 지냈던 선생님이 부탁하여 A 멘토링과 유사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이것이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과 같은 것인지 되물어보았다. 이 부분에 대해 참여자 H는 두 방법에 대한 체감이 매우 다르다고 답변해주었다. 단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활동을 진행했던 경험은 공식적인 경로로 진행되었다는 상징적인 의미도 갖고 있었다.

“그거(학교 선생님이 부탁해서 멘토링 하는 것)랑 A 멘토링단에서 거기 연락해서 날짜 잡아서 아예 하루를 잡고 하는 거랑은 완전 공적인 거, 진짜 공적인 거죠. 그냥 가서 선생님 얘기 듣고 하루에 한 타임 가서 얘기해주는 거랑 달라요.” (참여자 H, 2022.8.6.)

유사한 관점으로, 참여자 E는 현재 소속된 대학교에서 유사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있는데, 그것과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이 갖는 차이를 마찬가지로 언급해주었다. 그는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멘토링 프로그램의 경우, 멘토로서 청년 본인이 알아서 나머지 학생들을 돌보며 이끌어야 한다는 점에서 갖게 되는 부담이 다르다고 설명해주었다. 오히려 대학에서 진행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한 주변 친구들의 부담감이 느껴졌다고 언급했다.

“제가 뭔가를 이렇게 멘토링을 한다면 제가 잘 모르면 주변에 물어볼 사람이 많잖아요. 이미 선행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좀 저는 있었으니까 두려움이, 부담이 좀 덜했을 텐데,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맨바닥에 그냥 헤딩하는 거니까요.” (참여자 E, 2022.8.6.)

“의외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했을 때에는 그런 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많았고, 그런 걸 어디서 하나는 질문도 받았죠. 그때 제가 느꼈던 거는 모교 출신들이 해주니까 기회가 좋아서 바로 가깝게 얻었던 거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런 기회 자체가 없

있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정보가 되게 안 알려져 있는 것들이 많은 것 같구나 하는...”
(참여자 E, 2022.8.6.)

타인에게 자신의 의견, 생각, 정보 등을 전달하고 상호작용하는 활동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난도가 높은 경험이 되었다. 자신이 자발적으로 그런 활동을 수행하기에는 마음먹기의 정도가 높았고, 그에 대한 부담감도 상당했다. 이는 A 멘토링단에서 활동했던 연구 참여자들도 동일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러한 부담감을 딛고 오랫동안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동료 구성원이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실제 우리 학교에서도 그걸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으니까 (중략) 해보면 좋지 않겠냐 얘기를 했었거든요. (중략) 선배랑 동기가 했던 반응이 똑같았어요. 어쨌든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내용을 전달하는 건데 내가 올바른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고, 내가 그런 거 자료를 잘 준비할 수 있을지도 걱정이 된다고. (중략) 그런 질문을 받으면서 저도 멘토링 하면서도 더 느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정보가 다 아니고 제가 전달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해서 더 신중하게 찾아본 것도 있지만, (중략) ‘내가 정답이야’, ‘내가 모범이야’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런 하나의 케이스구나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참여자 E, 2022.8.6.)

연구 참여자들에게 있어서 ‘적절한 난도’의 사회 활동이란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쉬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 사회 활동 과정에서 돌발할 수 있는 여러 문제 상황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전제되는 것이 ‘적절한 난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러한 믿음을 형성하는 데 실천공동체로서 A 멘토링단에서의 동료 청년들과의 관계가 기여하고 있었다.

3)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

A 멘토링단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었다. 실천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유대감, 책임감, 사명감 등을 형성했으며, 또 다른 타인과 조직, 사회로의 참여 의지를 갖게 되었다. 처음

개인의 내면 차원에서 이루어졌던 정체성의 형성은 성찰을 통해 연구 참여자 개인의 삶의 기준점을 확립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는 사회적 차원에서 자신이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갖추게 해주었다. 또한, 다른 실천공동체 기반의 사회 활동에 참여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형성함으로써 개인 정체성이 사회와 연계되며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나누어 정리할 수 있었다.

(1) 실천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하다

A 멘토링단의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오랜 기간 활동해오면서 연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책임감을 강화하게 되었다. 여기서 책임감이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째, 해당 공동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 등 사회 활동을 계획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갖게 된 책임감이었다. 여기서의 책임감은 ‘강의를 준비하는 자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갖는 중요성’과 같은 태도적인 측면과 ‘발표 자료’와 같은 준비물과 같은 요인에 관한 것이었다.

“아무리 조그마한 50분짜리 강의라고 해도 개네가 시간 내서 들어주는 건데 제가 이거 몇 번 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다듬은 건 있는데 그래도 확실히 다른 사람의 시간을 제가 뺀 거니까, 좀 더 책임감 있게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좀 가지게 된 게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중략) 제가 공부를 하면서 강의를 들으면 그냥 자기 할 말만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50분에 강의했어도 과연 이게 애들한테 재미가 있는 걸까 맨날 생각했어요. 그래서 뭔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갖고 있는 뭐를 제공할 때 좀 더 철저하게 준비해서 책임감 있게 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지 않았나...”(참여자 F, 2022.8.6.)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이 사람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중략) 처음에 멘토링을 했을 때는 그렇게 무거운 생각 안 했었는데, 계속 피드백을 좀 받다 보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하구나 하는 것도 느꼈고...”(참여자 A, 2022.8.6.)

“학생들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에 대한 하나의 지표가 내 강연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에 책임감을 가지고 진심을 담아 발표 자료들을 준비했었어요.”(참여자 D, 2022.8.10.)

멘토링 프로그램과 관련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는 단계에서 갖게 된 책임감은 참여자 C의 언급처럼, 자신이 해당 전공이나 전문 영역에 대한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주었다. 또한, 자신이 좀 더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계기로 연결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참여자 C처럼 자신의 경험을 타인에게 공유한다는 생각을 토대로, 자신이 하게 되는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자 노력하는 양상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까지는 내가 뭘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어요. (중략) 근데 멘토링을 하면서 내 학교와 내 전공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누군가에게 그 정보를 전달해줘야 하다 보니 무관심했던 부분이 어느 순간부터 책임감이 들기 시작하고, 전공자이기도 하고 전문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제 멘토링 이후부터는 지금 관심 없었던 것들이 좀 더 탐구되어야 하겠다 싶고, 좀 더 발전되어야 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했죠.” (참여자 C, 2022.6.26.)

“학생들을 만나서 멘토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저의 말 한마디가 학생들한테는 또 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말 실수 안 하려고도 많이 했고. 인터넷에서 떠도는 좋은 말들을 하는 것보다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제 행동에 대해서 똑바르게 해야 아이들한테 좀 더 좋은 내용을 전달해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참여자 B, 2022.8.6.)

책임감에 관한 두 번째 측면은 A 멘토링단의 구성원으로서 조직 운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B는 활동하는 과정에서 기획팀장과 같은 운영진 역할을 맡았던 적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공동체 운영에 관한 측면에서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해주었다.

“기획팀장 맡았을 때부터 책임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보다는 업무를 맡았을 때 좀 잘 처리해야겠구나 그런 걸 느껴서 남들보다 뭔가 계속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려고 노력했고. 일정 같은 것도 남들이 다 까먹고 있을 때 그냥 저 혼자 기록해두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이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렇게 했던 것도 있고.” (참여자 B, 2022.8.6.)

A 멘토링단의 경우, 학교나 기관의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활동 중인 멘토들이 모두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게 하는 별도의 제도를 갖추고 있었다. 이와 같이 실천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자체적인 운영 규칙을 준수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운영에 관한 연구 참여자의 책임감 형성에 기여하기도 했다.

“활동들에서도 멘토들끼리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형성했었고, 그다음에 멘토링 시간 정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회의하고... 이런 활동들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반드시 참석하고, 또 내가 만약 일이 생기면 나를 대신하여 다른 멘토를 구해와라 식으로 우리가 서로 책임감을 부여했던 걸로 알아요.” (참여자 H, 2022.8.6.)

이처럼 실천공동체 내부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하는 과정과 각자에게 부여된 역할은 청년 개인의 책임감을 기르는 데 기여했다. 책임감을 부여하는 형태는 실천공동체의 특성과 구성원들이 수립한 자체적인 규칙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었다.

(2) 공식과 비공식 사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유대감을 편하게 형성하다

유대감의 사전적 정의는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공통된 느낌’이다. A 멘토링단은 공식적·비공식적 활동을 다양하게 운영함으로써 소속 청년들의 친밀도를 높이고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한 여러 노력을 전개했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별도로 수집한 관련 문서 자료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 멘토링단은 모든 멘토링 프로그램의 본 활동에 앞서 의무적으로 참여하는 멘토에게 1회 이상의 사전교육 참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타 멘토링 단체 또는 프로그램과 달리, 사전교육을 통해 구체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해하고 바람직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문화를 만들었으며 현재 본 단체의 강점으로 현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관련 문서 자료 3, 5쪽 일부 발췌)

이들의 활동은 서로 밀접하게 연결되는 것을 위해 MT(Membership Training, 이하 MT)와 같은 1박 2일 워크숍 형태의 활동이나, 신입 멘토와 기존 멘토 간의 상호작용

형성을 위한 멘토스 프로그램 등이 있었다. 또한, 위의 발췌 내용과 같이 자체적인 예 비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규 구성원을 위한 기초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활동들에 관한 언급은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서도 이야기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F는 A 멘토링단에서 활동했던 과정 속에서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구성원들과 교류하는 것에 대한 즐거웠던 경험을 갖고 있었다. 더불어 MT처럼 함께 친목하고 구성원들에 대해 깊게 이해해볼 수 있는 교류의 장을 가졌던 것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유대감을 가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멘토링에 가입해 사람들 만나는 게 좋아서 만나는 분들이랑 유대감을 가졌다고 생각해요. MT 가는 것도 좋았어요.” (참여자 F, 2022.8.6.)

A 멘토링단의 활동에서 연구 참여자들이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중 특이한 점은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층이 유대감을 느끼는 지점에 관한 것이었다.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들은 그들이 주되게 활동하는 경제 영역에서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것이 삭막하고 불편하다는 것을 이야기했다. 예를 들어, 참여자 B는 직장 생활에서 메신저나 메일 형태로 소통해야 하는 경직된 관계와 달리,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은 친밀하고 사적인 대화를 주고받을 수 있음을 설명해주었다. 이는 직장 관계로부터 오는 어려움과 삭막함을 보완해줄 수 있는 의미로서의 유대감이 되었다.

“직장 다니면서 사실 말할 일이 크게 많지 않거든요. 다 그냥 메신저 날리고 메일 쓰고, 특히 담당자랑 연락만 하고 딱히 친밀한 대화를 할 일이 사실 많지 않은데, 멘토링단에서는 그냥 친밀한 사적인 대화를 자주 하다 보니까 그게 편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참여자 B, 2022.8.6.)

연구 참여자들 중 졸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졸업 후 구직을 시도하고 있는 청년, 졸업하고 직장을 갖게 된 청년 등 청년층은 대학생에 한정되지 않는다. 더 이상 대학교 1~2학년 학생이 아닌 청년들은 A 멘토링단에서의 유대감을 토대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친밀감을 형성하기도 했다.

“돌이켜보면 처음 A 멘토링단에 들어오기 전에 저는 대학 생활이나 대외 활동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새로운 모임에 들어간다는 것이 굳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하던 시절에 A 멘토링단을 만났어요. 장래에 대해 깊게 고민하고, 서로가 가진 생각과 가치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일들이 즐겁고 가치 있다고 느꼈어요. (중략) 일상의 깊은 곳까지 공유하는 등 친밀감이나 연대감을 좀 더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참여자 G, 2022.8.10.)

A 멘토링단에서 활동을 지속했던 것과 함께 연구 참여자들은 청년으로서 다양한 층위를 갖게 되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이 단지 진로와 진학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고민을 실천공동체 내에서 서로 토로하고 위로하며, 사회로부터 얻지 못했던 감정을 얻는 데 있어서 유대감을 활용하고 있었다.

(3) 다른 영역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되다

연구 참여자들은 A 멘토링단을 통해 타인,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고 활동을 지속했던 경험들을 토대로,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에 관심을 갖고 긍정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G는 A 멘토링단 내에서 자체적으로 여러 소모임이 형성됐는데, 그 안에서의 활동에 대한 긍정적 감정을 갖게 되었다.

“그때 대학교 들어가고 처음 한 대외 활동이어서 그전까지는 내가 아는 사람이나 친한 사람들이랑 만나서 노는 거 아니면 모임이나 이런 거에 좀 회의적이라 해야 되나, 재미 없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았었는데. 멘토링을 처음 하면서 주기적으로 만나서 회의도 하고 소모임도 만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모임을 하는 게 되게 괜찮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참여자 G, 2022.8.10.)

이는 연구 참여자들로 하여금 A 멘토링단이 아닌 다른 영역에서의 사회 활동 참여

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며, 새로운 활동에 참여해보고자 하는 의지를 기를 수 있게 해주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H는 A 멘토링단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다른 단체 활동이나 소규모 모임에 참여하는 것의 두려움을 없앴으며, 활동 참여에의 적극성을 갖게 되었다고 말했다.

“적극성이 더 생겼어요. 내가 대학생 되어서 단체에 소속되어 하는 활동 중에 제일 먼저 한 게 A 멘토링단이었던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극이 돼서 대회 동아리라든지 학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되게 활발하게 참여했었던거예요. (중략) 앞으로 다른 봉사 활동이든, 아니면 또래끼리 나는 어떤 동아리 활동이든 두려움은 없었던 것 같아요. 두려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어요.” (참여자 H, 2022.6.26.)

관련하여, 참여자 E와 H는 도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앨 수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공동체 활동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더라도 구성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공동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 긍정하며, 협력을 통해 활동을 나을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되었다.

“이거 활동 하면서 제가 제일 얻은 거는 뭔가를 도전해볼 수 있는 거랑, 나서는 데 두려움이 없어졌다는 거죠. 뭔가 잘 안 풀려도 단체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어쨌든 해결방안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자신감, 믿음이 좀 생겼죠. (중략) 활동이 잘 안 된다 하더라도 단체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해 나갈 수 있겠다...” (참여자 E, 2022.8.6.)

“첫 번째 단추를 좋은 경험으로 채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후에도 여러 가지 동아리라든지, 아니면 학교 발표나 학교에서 하는 멘토링 활동 등에 되게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물론 그 모든 게 다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경험이 됐겠지만, 어쨌거나 그 첫 단추로 접했던 거는 A 멘토링단이었고, 거기서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이후의 활동에도 자신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끔 도와줬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H, 2022.8.6.)

이처럼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은 연구 참여자로 하여금 개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도록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활동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부담감을

없앨 수 있게 해주는 데 기여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일부 연구 참여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영역의 사회 활동에 또다시 참여하며 자신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의지로도 드러났다. 의지의 형태는 크게 세 가지로 세분화해볼 수 있었다.

첫째, 자신이 원래 소속되어 있던 전공이나 진로에서 더 나아가 궁금한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시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참여자 B는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전공과 진로에 대하여, A 멘토링단을 지속하면서 교육 영역에 대한 관심이 생겼고, 관련 수업을 수강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 자신과 같은 학번과 전공을 가진 친구들과 비교한다면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과목이었지만, 궁금했던 영역과 교과 내용을 스스로 선택하여 학습을 해보았다는 것에 대해 그는 자신의 삶이 풍성해졌던 경험으로 이야기했다.

“과에 다른 친구나, 아니면 조금 친했던 다른 많은 지인들은 ‘너는 전공이 그게 아닌데 왜 그걸 전공처럼 열심히 하냐고 했어요. 아예 전공이랑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저는 이 활동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교육학개론인가 그런 수업도 따로 듣다 보니 까...” (참여자 B, 2022.6.29.)

둘째, A 멘토링단에서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공동체 기반 활동에 대해 모호하게 느꼈던 부분을 구체적인 상황과 경험을 통해 해소되면서 이런 부분을 강화할 수 있었다.

“A 멘토링단 내 소모임이었던 (중략) 독서 모임 경험을 통해 앞으로 다른 집단에 속하고 다른 모임에서 활동하게 되어도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사람을 모으고 진행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는 알게 되었다고 여러 번 생각했어요.” (참여자 G, 2022.8.10.)

셋째, 일부 연구 참여자들은 A 멘토링단에서의 활동과 유사한 실천공동체 조직이나 참여를 추후에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참여자 E는 A 멘토링단 내에서 또 다른 소모임을 추후에 만들고, 함께 활동하는 구성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진행해보고 싶다고 말해주었다.

“저도 멘토링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죠. (중략) 제가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떠한 질문을 해보고, 뭔가를 얻고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은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든 적이 있어요. (중략) 적어도 한번쯤은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뭔가를 해보고는 싶다는 생각이 지금은 더 많이 들어요.”(참여자 E, 2022.8.6.)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A 멘토링단에서 자신이 체득한 다양한 경험들을 토대로 자신의 또 다른 사회 활동이나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의지로 연결 짓고 있었다. A 멘토링단에서 경험했던 실천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활동을 통해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활동을 긍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자발적으로 형성하고 참여했던 청년들의 첫 번째 실천공동체 활동에 대한 경험이 긍정적일 때 이후 다른 사회 활동으로의 연결고리로도 작용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VI

결론

1. 연구 결과 요약 및 제언

본 연구는 실천공동체를 통해 청년의 정체성이 평생학습 차원에서 어떻게 재정립되는가를 탐색하기 위한 질적 사례 연구로 진행되었다. 구체적인 연구 문제로 ‘A 멘토링단 사례를 통해 본 실천공동체 형성 과정에서 드러난 특징은 무엇인가?’, ‘A 멘토링단 사례에서 이루어진 실천 경험에 따른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로 정의하고, 연구 결과를 통해 각각을 해결했다.

1) A 멘토링단의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별 특징 및 도전 과제 도출

첫 번째 연구 결과는 실천공동체의 형성 단계인 잠재기, 결합기, 성숙기, 관리기, 변형기에 대해 각각의 단계에서 A 멘토링단이 보였던 특징을 분석하고, 각 단계에서 단체에게 요구되는 도전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도출하는 것이었다.

(1) 잠재기

잠재기 때 A 멘토링단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 과거의 경험과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단체 형성을 위한 동기를 형성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오는 결핍을 유사한 기회를 통해 승화시켜 보고자 하는 의지가 이들의 활동 동기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시기 A 멘토링단에게 요구되었던 도전 과제는 하나의 실천공동체의 태동 과정으로서, 청년들이 자발적 결속을 갖도록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었다.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일원으로서 청년들은 서로의 공통점을 탐색하고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작용했다.

(2) 결합기

결합기 때 A 멘토링단은 자신의 일상 고민을 단체 내에서 공유하고, 유사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공감하면서 해결방안을 탐색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청년들이 단체 활동을 적극 끝어나가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했던 경험, 그 과정에서 상호 유대감을 형성하기 위해 개인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말할 수 있었던 경험 등이 A 멘토링단이 구성되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이 시기 A 멘토링단에게 요구된 것은 그들이 계획 및 실천을 실제 해보고자 하는 유관 기관과 인프라 형성, 소통 채널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성숙기

성숙기 때 A 멘토링단은 단체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내·외부적인 여러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단체의 정체성을 구체화하게 되었다. 이 시기 A 멘토링단에 새로운 구성원들이 갑자기 많아지게 되었고, 이들의 관심 분야가 너무 다양해졌기 때문에 모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과 공동의 가치를 유지하는 것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했다. 관련하여, 이 시기 A 멘토링단에게는 실천 공동체로서 지속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탐색하고 강화하는 것이 주된 도전 과제로 보여졌다. 또한, 이 시기의 과제 해결을 위해 청년 정책적 차원에서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운영비 등 외부 지원이 함께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4) 관리기

관리기 때 A 멘토링단은 성숙한 구성원이 각자 다양성을 강화해 나가게 되면서,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인적 자원으로 기능하게 되었다. 2012년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공동체를 유지해오면서, 앞으로 지역 기반의 실천공동체로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인가 내부적인 논의를 지속하게 되는 시기였다. 관련하여 이 시기 A 멘토링단의 도전 과제는 안정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것과, 이들의 전문성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인지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 필요했다.

(5) 변형기

A 멘토링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상호 접촉하는 대면 활동의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되면서, 이것이 변형기의 단계를 가져오는 하나의 중요한 문제 상황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코로나19는 단체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던 사건이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A 멘토링단이 해결해야 할 도전 과제는 과거 자신들의 운영 이력과 성과를 정돈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방향성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또한, 새로운 방향성을 토대로 장기적인 운영 전략을 개발하는 것도 함께 요구되고 있었다.

2) A 멘토링단 사례로부터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 도출

두 번째 연구 결과는 A 멘토링단 사례에서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을 중심으로 범주를 도출한 것이었다. 이론적 배경의 관련 선행연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체성 분석틀로 자신에 대한 재인식,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를 구조화했다. 이를 A 멘토링단의 사례에 비추어 분석 틀을 적용했을 때, 각각에 대한 특징과 범주화가 무엇으로 정의되는지 최종 도출했다.

(1) 자신에 대한 재인식

자신에 대한 재인식 차원에서, A 멘토링단에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청년들은 개인의 내면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을 만큼의 새로운 자극을 감각할 수 있게 되었다. 연구 결과 1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실천공동체가 성장해 가는 단계마다 놓여 있던 다양한 경험들이 한 청년으로 하여금 성인 학습자로 기능할 수 있게 계기를 제공해주었다. 구체적으로 청년들은 첫째, A 멘토링단이라는 실천공동체와 여기서 구현된 경험의 장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고유한 특성을 탐색할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자신의 과거 경험에 대한 결핍이나 못다 이룬 꿈을 이 단체에서의 활동을 통해 긍정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었다. 셋째, 자신의 진솔한 이야기가 타인에게 도움이 되었던 순간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게 되었다.

(2)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성찰을 통한 삶의 기준점 생성 차원에서, A 멘토링단의 청년들은 자신을 둘러싼 타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관계적 안목을 갖추게 되었다. 이는 청년들의 실천공동체 활동이 자신의 내면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성찰을 통해 주변 사람과 지역사회 등 자신을 둘러싼 사회 구조와의 관계성 속에서 인지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 차원에 관한 청년의 정체성 변화의 특징은 첫째, 다양한 사람과 교류하는 과정 속에서 사회 구조적 관점으로서의 자신을 살펴볼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둘째, 적절한 난도의 사회 활동으로 A 멘토링단이 기능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 자신과 사회를 잇는 중간 다리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3)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

사회적 차원의 행동 변화 차원에서, A 멘토링단 활동 청년들은 공동체 구성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영역의 사회 활동으로의 참여 의지를 갖게 되는 계기로 작용했다. 관련한 청년의 정체성 변화의 특징으로는 첫째, 실천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활동과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강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었다. 둘째, 공식과 비공식 사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공동체와 지역사회에 대한 유대감을 보다 편하게 형성할 수 있었다. 셋째, 이 공동체에서의 활동을 토대로 다른 영역의 사회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게 해주었다.

2. 관련 정책 제언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진은 청년 관련 정책 중 교육 분야에 관해 그 방향성을 고려한 제언으로 나누어 다음의 [그림 4]와 같이 정리할 수 있었다. 이는 청년에게 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정책적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예산과 관계 부처의 지원을 요구해야 할 것인가에 관한 측면과도 연관된다.

[그림 4] 교육 분야 청년 실천공동체 지원을 통한 이점 및 기대 효과, 방향성

정책적 이점 및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연령대 청년과 상호작용을 통한 정보 습득 및 타인의 경험과의 비교를 통해 진로 선택, 진로 설계 도움 - 지역 기반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 서울 등으로 이주한 청년의 지역사회 관심, 사회 참여도 증가
교육적 이점 및 기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평생학습 기대, 지역의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 - 한국 입시 및 취업 압박에 의한 교육의 부정적 정서 환기, 긍정적 경험 제공 - 청년 실천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관계 단절 극복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지원 및 취·창업의 목적을 가진 ‘청년을 위한’ 교육 • 청년의 주기적 위기를 알아보고 대비하는 ‘청년에 관한’ 교육 • 청년의 경험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청년에 의한’ 교육 <p style="text-align: center;">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p>	

구체적으로 첫째, 교육비 지원과 취·창업 목적을 지닌 ‘청년을 위한’ 교육이 되어야 한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 폭넓게 분포되어 있는 청년의 특징을 고려한다면 이들이 원하는 것은 단지 취·창업에 국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궁극적으로 청년을 위한 교육의 목적은 청년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지 않고, 경기도의 지역사회 구성원이자 하나의 인적 자원으로 올바르게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청년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것이 개인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이기보다는 청년공동체 형태로 이루어져 사회로부터 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둘째, 청년의 주기적 위기를 알아보고 대비할 수 있는 ‘청년에 관한’ 교육이다. 청년의

특징은 단지 몇 개의 특징으로 환원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며 각자의 의미를 존중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청년층은 나이를 기반으로 하는 주기보다는 상황에 따른 유형화로 재정립해볼 수 있다. 20대 초반, 중반, 후반 주기로의 구분은 한계를 갖는다. 상황에 따른 유형화를 통해 한 청년이 어느 유형에 더 잘게 소속되어 있는가를 중심으로 현대의 청년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

셋째, 청년의 경험을 교육적 자원으로 활용하는 ‘청년에 의한’ 교육은 경기도의 맥락을 고려할 때 더욱 강조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경기도에서 초·중·고등학교 등 비교적 오랜 기간 지냈던 청년들은 타 지역으로 옮겨가더라도 자신의 어린 시절 주요 활동 지역에 관한 향수를 갖고 있다. 또한, 그 지역에서 자신의 가치, 의미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면 이들은 움직일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시공간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온·오프라인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도 이들의 활동 가능성을 더 높여주게 되었다. 따라서 경기도 청년 정책 중 교육 영역에서는, 경기도에 한정된 청년을 위해 무엇을 제공할 것인가 일방향적 관점만을 모색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청년을 통해 경기도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비록 현재 주 활동지가 다른 지역이더라도 경기도 지역사회로 돌아와 활동할 가능성은 없는가를 고려해야 하며, 이것이 경기도 청년이 인적 자원으로 보다 풍성하게 기능할 수 있게 하는 데 중요한 근거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방향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교육 분야 청년 정책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1) 현행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 관련 개선 의견

현재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사업은 지원 자격을 법인 혹은 세무서를 통한 고유번호증 발급 단체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속성을 가진 공동체들을 제도권으로 포용하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 이는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위한 신생 청년공동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청년 인적 자원을 거주 지역 단위로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 이 부분에 관한 개선을 위해, 전라남도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사례를 참고해볼 수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 모임을 지원하되, 도내 청년 외에도 도내에서 초·중·고 혹은 대학교 재학·졸업생도 지원 가능하게 해주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는 도내 출신 청년 3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법인 설립도 의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 문턱을 낮춰주고 있었다. 이처럼 다른 지역의 유사 사례에서 지원을 확대해주는 것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는 초·중·고 졸업 이후 서울로 이주하는 청년이 많은 경기도에서 청년이 다시 지역에 돌아와 초·중·고 시절을 보냈던 지역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 지원 공모사업에서 필요시 면접 및 청년공동체와 의견 조율을 통해 지원금을 차등 지급한다면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청년공동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여러 청년 정책이 경기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지를 보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는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서울과 유기적 연계성이 크고 서울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많이 있다. 일정 기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험이 있거나, 타 지역으로 이동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초·중·고 시절을 보낸 청년들도 경기도의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청년 인적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고민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통해 청년들은 청년 공간 필요성을 자주 언급하고 있었다. 경기도의 경우 현재 다양한 곳에 청년 공간을 개설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31개 시 단위의 청년 공간에 대한 홈페이지 및 인프라 형성은 각기 다른 상황이다. 공간 활용에 대한 기준 및 방법, 절차를 표준화하여 일괄 관리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 및 통일성 있는 운영 필요해 보였다.

마지막으로 수원형 청년 정책, 파주형 청년 정책 등의 정책이 지역만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는 측면이 있지만, 모든 경기도 청년 정책이 포함해야 할 필수 포함 요소의 기준이 모호해 보였다. 기본적인 경기도 청년 정책의 일관적인 형태가 필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좋은 사례를 발굴 및 공유 확산할 필요가 있다.

2) 성인 학습자이자 학습 주체로 거듭나는 청년 교육 지원 체계 유형화 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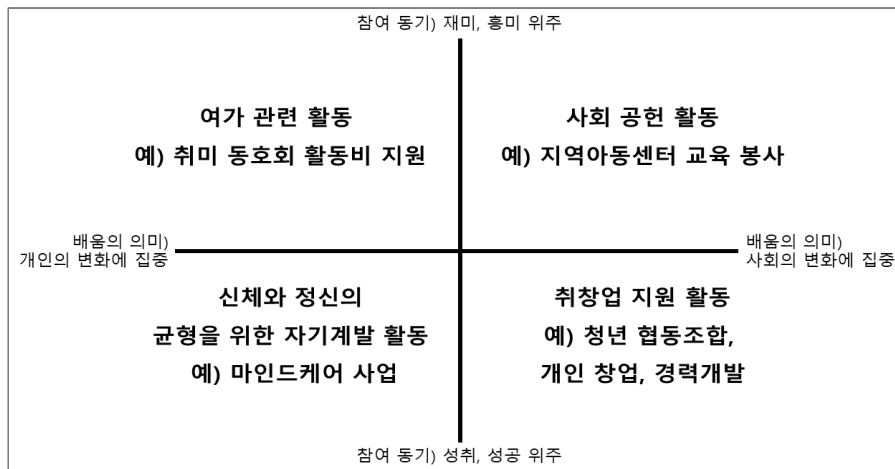
본 연구팀은 평생학습 차원에서 청년을 학습 주체로 보고, 지원되어야 할 교육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유형화할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우선 온라인청년센

터를 통해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의 현재 진행 상황을 검토했으며, 그 결과, 개별적인 지원 외의 청년공동체 및 지역사회와의 연결성을 강조한 프로그램 및 활동 지원 필요성을 확인했다. 또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했다.

교육 분야에서도 취·창업 관련 외의 평생학습 측면의 지속적 지원을 위한 방안과 아이디어 모색이 필요했다. 특히, 본 연구의 실천공동체 논의와 같이 청년이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주도적으로 형성한 청년공동체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 보였다. 탑다운(Top down) 방식으로 정해진 프로그램이나 사업 중 선택하는 방식은 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한계가 있다. A 멘토링단의 사례처럼 각자의 결핍과 공동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시작되는 단체는 청년과 지역의 요구에 맞게 스스로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공적 지원이 끝난 이후에도 장기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었다.

따라서 청년을 지속적 학습 주체로 보고, 청년이 배움의 의미를 두는 곳(X축), 청년이 교육에 참여하는 동기(Y축)로 설정해 각 사분면의 유형에 해당하는 활동과 예시를 [그림 5]와 같이 유형화해 보았다. 이러한 유형화 구분은 교육 영역의 지원이 청년의 사회 활동과 청년 단체를 여가 차원의 가벼운 성격에서부터 사회의 변화와 관련된 심화 차원까지 체계적인 구분으로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5] 청년 교육 지원 체계 유형화



3) 실천공동체로서 청년들의 사회 활동 및 단체 형성에 대한 맞춤 지원 방향 제안

앞서 연구 결과 1을 통해 실천공동체로서 A 멘토링단이 형성되는 과정과 그에 상응하는 도전 과제를 도출했었다. 이에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다음의 <표 10>으로 정리하여 제안했다.

<표 10> A 멘토링단의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별 도전 과제에 따른 정책적 지원 방향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	도전 과제	정책적 지원 방향
① 잠재기	청년들이 자발적인 결속을 갖게 만들기 위한 공통점 탐색과 소통의 장 마련	청년들이 공동의 문제의식을 이야기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 환경 조성
② 결합기	사회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유관 기관과 인프라 및 소통 채널 확보	청년들이 사회 활동을 실천해볼 수 있는 협력 인프라 구축 및 제공
③ 성숙기	실천공동체로 지속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탐색 및 강화	⇒ 실천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역량을 진단하고 강화할 수 있는 맞춤형 컨설팅 제공
④ 관리기	안정적 운영 체계를 구축하여 전문성의 인증 방법 모색	우수 실천공동체를 선별 및 재량권을 확보해줄 수 있는 인증 제도 제공
⑤ 변형기	운영 이력과 성과에 기반한 새로운 방향성 탐색 및 장기적 운영 전략 개발	장기간 유지되어온 실천공동체의 새로운 방향성 탐색 및 자기적 관점에서의 운영 전략 도출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3. 후속 연구 제언

연구진은 후속 연구로 청년들의 실천공동체 형성을 위한 관련 영역 및 관계 기관 간의 관계망을 중심으로 한 개념적 모형(conceptual model) 개발 연구를 제안한다. 개념적 모형이란 하나의 복합적인 현상의 구현 양태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요소들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델을 의미한다. 개념적 모형을 통해 실제적인 사실을 가상의 개념적인 사고 틀로 분석할 수 있다. 또한, 관련 개념의 연관 양상을 구조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복잡하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로 기능한다.

구체적으로 경기도의 맥락으로부터 하나의 청년 실천공동체가 뿌리내리기 위해, 청년 개인과 실천공동체, 지역사회의 교육 기관, 행정 기관 등 간의 상호작용 양상을 개념적 모형으로 도식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Randers(1980)이 제시한 개념적 모형 개발을 위한 네 가지 단계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개념화, 모형 구축, 타당성 검증 과정, 최종 모형 도출로 이루어져 있다. 경기도의 맥락에 적합한 청년 실천공동체의 활동을 재개념화하고, 이것이 역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계 원리, 구성요소, 설계 전략 도출을 위해 관계자들을 심층 면담할 것이다. 또한, 결과로 도출된 개념적 모형에 관해 관련 연구 또는 실무 차원의 전문가협의회로부터 타당성 검증을 시행하여 최종 모형을 도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후속 연구는 본 연구의 연구 결과로 반복적으로 강조했던, 하나의 청년 실천공동체가 형성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는 데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실제 경기도 맥락에 부합하는 동시에 청년이자 인적 자원으로써 경기도가 필요로 하는 방향으로의 교육 지원과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향성 모색에 기여할 것이다.

참고문헌

<논문>

- 강효민. (2011). 도시공동체로서 향우회 스포츠 클럽 활동과 정체성의 재구성.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4(2), 125-149.
- 김수연. (2019). 대학생의 정체성 혼미와 우울과의 관계에서 긍정적 자아 인지와 부정적 자아 인지의 매개 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 463-482.
- 김영옥. (2015). 실천학습공동체의 학습 과정 연구: 재능 기부 학습 동아리의 사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1(2), 189-213.
- 민은주, 윤병천. (2011). 제2언어로서의 수화가 농청년의 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2(3), 41-60.
- 배을규. (2007). 일터 학습 이론의 한계와 방향: 세 가지 실천 기반 학습이론의 관점에서. 교육의 이론과 실천, 12(1), 189-208.
- 안정희. (2017). 지방 분권 시대의 청년공동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 자치발전, 2017(8), 22-29.
- 양흥권. (2011a). 실천공동체(CoP)의 학습 분석 틀 구성 연구. 한국HRD연구, 6(4), 41-59.
- 양흥권. (2011b).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있어서 실무자 실천공동체(CoP)의 성장과 학습 역동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7(4), 1-29.
- 오상석, 이지운, 박오원. (2021). 신입 직원 이직의 전염 효과가 조직 성과에 미치는 영향: HR 기능의 전략적 지향성과 조절 효과. 조직과 인사관리연구, 45(3), 1-19.
- 오원환. (2011). 탈북 청년의 정체성 연구: 탈북에서 탈남까지.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상수. (2017). 교사실천공동체 성장 과정에 나타난 확장학습 경험에 관한 사례 연구. 평생학습사회, 13(1), 25-48.
- 이은철, 최문선. (2015). 국내의 실천공동체(Communities of Practice) 연구 동향 분석 및 성공 요인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3), 438-447.

- 이준석, 백정석. (2017). 실천공동체(CoP) 학습 경험에서 나타난 구성원들의 실천(praxis) 형성 과정. 교육사회학연구, 27(3), 135-156.
- 전경숙 (2021). 「청년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청년정책의 방향성 고찰. 입법과 정책, 13(1), 117-146.
- 정연순, 이로미. (2009). 탈(脫)학교, 입(入)학습: 실천공동체 관점에서 분석한 청소년의 대안적 학습 경험. 평생교육학연구, 15(1), 67-94.
- 조진우. (2020). 청년정책의 실질화를 위한 입법론적 소고 - 청년기본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48, 615-648.
- 홍영숙. (2021). 캐나다의 한국계 이민가정 청년의 언어 정체성 형성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질적탐구, 7, 43-72.

<단행본>

- 신용주. (2015). 평생교육방법론. 서울: 학지사.
- 유기웅, 정종원, 김영석, 김한별. (2018). 질적 연구 방법의 이해. 서울: 박영스토리.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조대경 역. (1990). 아이덴티티: 청년과 위기. 서울: 삼성출판사.
- Illeris, K. (2009). Contemporary Theories of Learning: Learning theorist ... In their own words. 전주성, 강찬성, 김태훈 옮김. (2018). 현대학습이론 : 세계적인 석학 16인의 시각. 서울: 학지사.
- Wenger, E., McDermott, R. A., & Snyder, W. M. (1956). Cultivating Communities of Practice. 황숙경 옮김. (2004). CoP 혁명. 안양: 물푸레.

<연구보고서, 신문기사, 기타 자료>

- 경기도. (2018.3.2.). 2018년 경기도 청년 따복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경기도 공고 제 2018-79호.
- 경기도. (2020.12.). 2021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공모. http://gpcommunity.or.kr/index.php?mid=board_notice_2&document_srl=19296&m=0
- 경기도. (2022.3.14.). 2022년 경기도 청년공동체 협력사업(청이담) 모집 공고. <https://yo>

uth.gg.go.kr/gg/intro/notice.do?mode=view&articleNo=4162

관계부처 합동. (2020).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관계부처 합동. (2022).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 : 2022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8.17.). 청년기본법 법류 제18433호 일부개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B2%AD%EB%85%84%EA%B8%B0%EB%B3%B8%EB%B2%95>

대학내일20대연구소. (2018.6.1.). 청년의 진짜 행복을 위한 청년정책을 찾아서. RR2018-5. <https://www.20slab.org/archives/27452>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2021). 2020년 코로나19에 따른 청년층 이행 경로 영향 연구.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 연구보고서, 2020-2, 1-205.

온라인청년센터. (2022). <https://www.youthcenter.go.kr/main.do>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2021.4.26.). 「2021년 청년 무한도전 프로젝트」 공모사업 공고.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1-30호.

한혜성. (2021.8.30.). 청년정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명대신문, 1090호. <https://news.mju.ac.kr/news/articleView.html?idxno=10873>

행정안전부. (2022.1.6.). 지역 활력을 이끄는 청년공동체를 찾습니다 -부산 등 15개 시·도에서 청년공동체 140개 팀 모집 및 활동 지원-. 행정안전부 지역공동체과.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08&nttId=89770

부록

1. 심층 면담 연구참여동의서 샘플

연구 참여 동의서

연구 주제: 실천공동체를 통한 평생학습 차원의 청년 정체성 재정립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연구자: 컴패스 멘토링단

본 연구의 목적은 A 멘토링단의 사례를 실천공동체(Community of Practice)로 정의하고, 이를 경험한 청년이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탐색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소통하고 활동에 참여했던 사회 참여 활동이 그들의 정체성 재정립에 주는 의미를 파악하고, 더 나아가 경기도의 청년 활동 지원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팀은 A 멘토링단에서 활동한 8명의 멘토께 심층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연구 참여에 동의하시면 심층면담이 2회 진행되며 약 1시간~1시간 30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심층면담 내용은 연구자에 의해 녹음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익명으로 처리하며 수집된 모든 개인정보의 비밀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연구 참여자는 심층면담 과정에서 특정 질문에 대한 대답을 거부할 수 있으며, 원하지 않는 경우 언제든지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연구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약속드립니다.

1. 나는 이 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발적으로 동의합니다.
2. 나는 이 연구에서 자료 수집을 위해 심층면담을 녹음하고 기록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3. 나는 수집된 자료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2 년 6 월 2 일

연구 참여자

2. 연구진 회의록

날짜	2022.5.8. (일)	참여자	강수민, 강수현, 장정원
주제	연구 문제 및 정책 제안 방향 수립, 컨설팅 준비 등		
회의 내용			
[연구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A 멘토링 단체의 실천공동체 형성 과정의 특징은 무엇인가?- A 멘토링 단체에서 이루어진 실천 경험에 따른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은 무엇인가?			
[정책 제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재 경기도 교육정책의 대부분은 중·고등학교 입시 문제, 대학생들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우리가 제안할 수 있는 것의 예) 단기성 단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원 필요. 금전적 지원뿐만 아니라 컨설팅 같은 인적 지원도 필요함.- 만약 너무 얄다 싶으면 신청서 내 레퍼런스 중 ‘온라인청년센터’의 청년에 대한 지원을 추가 하기			
[5.14. 컨설팅 전 준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 목적, 연구 방법, 연구 내용,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정리해서 제출하기- 11일 오후 1시까지 정리한 내용 취합 후 위원님께 전달			
[연구진 역할 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수민: 취합 및 참고문헌 추가 / 일정 계획 수정하기- 강수현: 연구 내용 및 개선방안 및 정책 제언- 장정원: 연구 목적 및 연구 방법 / 심층 면담에 필요한 양식은 수요일 이후에 한글 양식으로 만들기			
[예상 보고서 분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론: 1쪽 - 선행연구 분석: 24쪽- 연구 방법: 2쪽 - 연구 결과: 50쪽- 결론 및 제언: 4쪽 - 참고문헌- 부록 (심층 면담 질문지, 심층 면담 성찰 일지, 코딩 자료 원본, 심층 면담 전사 자료(일부 샘플))			

날짜	2022.5.27. (금)	참여자	강수민, 강수현, 장정원
주제	컨설팅 피드백 내용 정리 및 심층 면담 계획 수립		
회의 내용			
[지난번 피드백 내용]			
1. 인터뷰 질문지를 사전에 작성해서 위원님께 전달			
2. 질문지와 목차에 대한 부분 사전 상의			
[진행해야 하는 내용]			
1. 질문지 내용 선정: 이전 연구에서의 질문지 내용 공유			
실천공동체와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세부 질문 선정			
[인터뷰 계획]			
1. 예상 심층 면담자 6명 * 2회 면담 진행 (예상 일정: 6월 5~6일)			
먼저 진행하는 2명은 회당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담 진행			
2. 연구 참여자 에세이 작성 후 연구팀에 제출			
[심층 면담 대상자]			
1. 7년 이상 활동한 멘토: 연구 참여자 A/연구 참여자 B/연구 참여자 C/연구 참여자 D			
2. 5년 이상 활동한 멘토: 연구 참여자 E/연구 참여자 F/연구 참여자 G/연구 참여자 H			
날짜	2022.7.7. (목)	참여자	강수민, 강수현, 장정원
주제	1차 심층 면담 전사 내용 핵심 정리		
회의 내용			
1. A 멘토링단 사례에서 드러난 실천공동체 형성 과정에서의 특징			
[초기 단계]			
- 나와 가까운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공통의 정서와 동기로 모이게 됨			
- 처음에는 이 단체의 진입 사유가 본인의 과거 경험과 무관하지 않았으나... (과거 꿈의 대리 실현, 과거 봉사 활동에 대한 긍정적 경험 등) > 선순환 구조 형성			
- 멘토링단의 체계를 형성하거나 규율을 만들			
- 정체성 성립에 초점 : 기존 멘토링에 대한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학교, 학부모 요구와 조율 과정 (엘리트주의 지양하고 각자 나름의 스토리를 공유할 수 있는 > 다양성!)			
- 다양한 멘토링 방식 고민, 아이디어 및 시행착오 단계			

[성숙 단계]

- 멘토들 간의 유대관계, 인적 네트워크 활성화 > 사회적 자본
- 운동, 독서 모임 등 소모임 > 단체 내에서의 소규모 활동이 갖는 자생성을 높임 (Top down 형태의 단체 조직이 가질 수 있는 한계 극복, 역동성 강조) / 소모임을 통해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는 것. 우리가 일정한 틀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가 정말 요구하고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들어졌다고 흠어질 수 있는 유동성 확보. / 맨 처음 독서 모임을 제안했던 건 독서 모임을 다른 단체에서 해봤는데 좋았던 경험이 있었음. 그리고 우리 멘토들이 좋은 인적 자원이고, 다양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음. 소모임은 내용이 중요하다기보다는 행위 측면에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질적으로 높이기 위한 하나의 매개체로 생각했음. > 멘토들의 역량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되었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일상 생활에서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기여함 (*잘 풀어보면 좋을 듯) > 멘토링에서 멘토-멘티만의 멘토링을 강조한다면 청년에 포커싱을 맞추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우리의 멘토링단이 ‘커뮤니티’ 이런 말을 넣는 것도, 멘토들 간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 중 하나. 청년들 간의 상호작용과 활동 측면에서 소모임이 갖는 의미도 굉장히 컸음. > (청년세대) MZ세대를 단순화해 생각하면 안 된다. 좀 더 과정을 봐달라고 해야 하나. 결과물만 갖고 평가해왔던 것들에 대해 노이로제에 걸려 있는 세대. 수치화하고, 문서화하고, 결과 보고를 지속하기를 바라고 그런 것들.
- 연구 참여자 D 답변에 대한 부분 >> (정책적인 부분) 양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질적으로 평가해달라는 것. 예를 들어, 당연히 어려울 수 있겠지만, 혜택을 받은 멘토한테 자세한 인터뷰를 받는다면, 오히려 피드백 받는 과정이 들어가 있으면 좋은데, 너무 단순화된 수치로만 판단하니까, 누적해서 캡처만 한다면 의미 없어 보이는 활동들로 느껴짐. (* 우리가 했던 예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멘토링의 질적인 부분을 높이려고 했던 시도들..)
- 인생 주기별 비슷한 고민을 공유

[세대 간의 교류]

- 멘토들을 대상으로 한 멘토링
- 결속력 및 유대감 형성 단계 > 지역 커뮤니티에 기반한 특성 > 청년들의 유입을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방법으로 지역 기관 및 지역 인적 네트워크 강조(정책에 연결) /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단체의 지속가능성에 믿음이자 동력 형성 (바로 위 활동과의 연계성,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멘토링을 많이 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계속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 우리가 단체에 모이게 된 이유는 제각각의 이유가 있었는데, 뭔가 이 단체에 속해서 계속 활동하면서,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해감에 따라 우리의 목표가 개인적인 것에서 단체의 공통적인 것을 향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우리의 멘토링단 형성 단계와도 관련이 있지 않을까. > 청년 지원 정책 측면에서 장기간에 걸쳐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청년 개인 측면에서의 성취를 제고할 뿐만 아니라, 공동체와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형성하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량을 쌓게 해 주는 데 도움이 됨 (전이됨)

2. A 멘토링단 사례에서 이루어진 실천 경험에 따른 청년 정체성 변화의 특징

- 다른 청년과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하는 과정을 통해 다른 전공, 관심사에 동화됨
- 20대 초·중·후반에 걸쳐 상황에 따라 멘토링 내용의 변화(단계별로 멈춰서 생각해볼 기회)멘토 스스로의 진로 설정 구체화에 도움
- 전공자, 전문가로서의 책임감. 청년으로서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줄 기회가 흔치 않다.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언어로 구체화
다수의 타인 앞에서 나의 이야기를 하는 계기로, 자아 성찰을 하는 계기 >> 타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시작한 활동이지만, 준비 및 활동 과정에서 본인의 학업 전반, 진로를 되짚어 볼 수 있음.
- 멘토링 준비 과정 및 소모임 활동에서의 멘토 간 상호작용을 통해 다양한 전공을 지닌 다수 인원의 의견 공유의 장이 만들어짐. >> 사고의 폭, 견문을 넓히는 기회 / 단점을 보완하게 되는 계기
- 20대 극초반에 대학 내 단체보다 처음 접하게 되는 단체로서, 고교 졸업 이후 성년의 단체 생활에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날짜	2022.6.15. (수)	참여자	강수민, 강수현, 장정원
주제	1차 심층 면담 프로토타입 진행 후 내용 보완		
회의 내용			
1. 목차			
2. 연구 참여자 명단			
- 연구 참여자 A~H 확정. 연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특징을 도표로 정리			
3. 심층 면담 내용			
- 심층 면담 프로토타입에 대한 내용 정리 후 보완			
++ 16일 오후 1시까지 연구진 성찰 일지 취합			
++ 16일 오후 3시 위원님께 메일 보내기			

3. 성찰 일지 샘플

날짜	2022.6.4. (토)	참여자	강수민, 강수현, 장정원
주제	1차 심층 면담으로 2명 진행 종료 후 연구진 내부 성찰 기록		
성찰 내용			
<p><강수민> 2명에 대한 1차 심층 면담이었기 때문에 내용 공통분모를 찾기가 조금 조심스럽다. 그럼에도 두 가지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있다. 첫째, 청년에게 있어 사회 활동은 자신을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기회가 되고 있다. 기성세대가 사회의 부조리를 극복하고 민주화를 위한 적극적 움직임으로 사회 활동을 인식했다면, 지금의 청년은 자신만이 갖고 있는 남다른 경험을 알리고 주체성을 갖는 행위로 사회 활동을 보는 것 같았다.</p> <p>둘째, 지금의 청년에게 사회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정책 요소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의 장, 나를 필요로 하는 단체와의 연결 지원 등을 언급했다. 오히려 비용에 대한 부분은 연구 참여자 2명 모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통비와 같은 행정 증빙을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의 비용 지급만 해주고, 오히려 경험을 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지원을 개인이나 조직에 제공해주기를 바라고 있었다.</p>			
<p><강수현> 물질적인 보상이 큰 유인요인이 되지 못한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물질적 보상을 위해 개인에게 행정적 증빙을 요구하는 것보다 학교와 멘토링 단체를 연계해 진입 장벽을 낮추고 지속적인 기회를 제공하다 보면 즐거운 경험을 한 뒤에 자발적인 참여도가 높아져 더 장기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실제로 장기적으로 활동에 참여한 멘토들은 멘토링 단체의 특징으로 보상이 없어도 자발적 참여를 한다는 점을 꼽았다.</p> <p>멘토링 활동을 통해 말하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을 것이라 단순히 예상했다. 하지만 다양한 학과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다른 의견을 듣는 시간, 나의 지난 활동을 되돌아보고 나를 정리하는 시간 등 멘토링 활동을 통해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p>			
<p><장정원> 멘토링 활동이 멘토인 청년에게 인생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활동이라는 대답이 인상 깊었다. 또한, 멘토링이 선한 마음을 기반으로 참여하는 활동이라는 점과 멘토들이 보상으로 바라는 것은 꼭 금전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정책적 지원과도 연결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면담에서 처음으로 질문자 역할로 심층 면접에 참여해 어색한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다양한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좋은 질문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볼 계기가 되었다.</p>			

4. 심층 면담 전사 자료 샘플

날짜	2022.6.4. (토)	연구 참여자	연구 참여자 E
면담 전사 내용			
<p>연구진 04:40</p> <p>연구 참여자 E다운 소감이다. 이어서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로 궁금한 거는 우리 단체에서 활동하면서 나의 이야기를 멘토링하기 위해 준비하고...</p> <p>연구진 05:01</p> <p>실제로 학생들 앞에서 얘기를 해보았던 경험이 있었냐, 그리고 그때 무엇을 느꼈냐 이걸 넣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연구 참여자 E가 이미 얘기해준 부분일 수 있어. 그래서 만약에 많이 중복된다고 하면 스킵을 해도 되고, 그럼에도 이제 이 질문을 넣은 포인트는 경험보다는 그때 무엇을 느꼈는가가 조금 더 포인트라서...</p> <p>연구진 05:22</p> <p>혹시 그거랑 관련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좀 더 있다면 해줘도 될 것 같애. 넘길까, 아니면 해줄 얘기가 있을까?</p> <p>연구 참여자 E 05:30</p> <p>방금 누나가 얘기한 것 때문에 좀 떠오르는 생각이 짧게는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 이전에 아마 얘기를 했었던 것 같긴 해.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본 적 있냐 해서 주변 지인이나 아니면 선배라든지 동기들한테 이런 걸 얘기를 해줬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런 관련된 활동을 했고, 내가 느꼈던 것처럼 좋은 경험을 했다는 걸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p> <p>연구 참여자 E 05:53</p> <p>그거와 더불어 지금 누나가 질문한 거 통해 그때 그 사람들 반응 같은 걸 봤을 때 생각보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걱정 앞서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게 좀 새롭게 느껴지기는 했어. 지금 누나 질문을 받고. 이전 질문에 내가 답변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했던 경험이 있다 정도만 얘기했다면... (하략)</p>			

6. 범주화 결과 샘플

실천공동체 형성 단계	범주화 내용	개방코딩 번호	개방코딩	전사본 심층면담 내용	연구참여자	전사자료 쪽수	인터뷰 진행 날짜
잠재기	과거의 경험,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싶은 마음으로 단체 형성의 동기 생성	1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함	(조각) ... 사실 나도 멘토링을 누군가에게 받고 굉장히 좋은 영향을 받았던 기억이 있었던 말이야. 그래서 나는 지금 나의 고등학교 후배들도 내가 나가서 멘토링 하는 것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아서 본인의 진로나 꿈에 대해서 목표를 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데 도움을 받았으면 했어. 그게 큰 이상이었던 것 같아. ... (후략)	연구참여자D	2	2022.6.4
		8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인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함	(조각) ... 생각보다 아닌 친구들이 되게 많더라. 학업에 지어 살면서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애들이 대부분이었고, 멘토링단에서 그런 걸 도와줄 수 있는 하나의 역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거지.	연구참여자E	1	2022.6.4
		16	멘토링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활동을 희망함	저도 도움을 받았고 그랬고. ... (중략) ... 제가 30이였을 때 그 형이 22살이었는데, 23살이었는데,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방법들) 많이 알려줘서 저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멘토링단에) 들어갔고.	연구참여자F	1	2022.6.26
	자신의 과거 경험으로부터 오는 개념을 유사한 기회를 통해 강화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활동의 동기로 작용함	33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결핍)이 활동의 동기로 작용함	(조각) ... 임시 방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멘토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멘토링을 했던 게 대학교 입학 멘토링이었어요. ... (중략) ... 내가 고등학교 때 느꼈던 답답했던 부분을 좀 풀어줄 수 있을거라 생각했어요.	연구참여자H	1	2022.6.26
		50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결핍)이 활동의 동기로 작용함	제가 생각에는 한국 교육의 특성상 전공을 선택할 때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는 걸 학생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아요. ... (중략) ...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받았는데 캐리어에서, 저들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전공 수업들 들으면서 그렇게 탐색하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를 관심하게 했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만, 동기나 나지 않아서 저희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을 좀 알아볼까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멘토링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멘토링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구참여자A	1	2022.6.29
		39	자신이 겪었던 어려움(결핍)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희망함	대학교 입학 멘토링 같은 경우는 내가 처음에 여기 컴팩스에 들어오면서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임시 방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답답했던 게 있었는데 그것을 알려주고 싶은 멘토링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멘토링을 했던 게 대학교 입학 멘토링이었어요. ... (중략) ...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성적이 만족스러울 정도로 받았는데 캐리어에서, 저들이 대학교에 입학해서 전공 수업들 들으면서 그렇게 탐색하지만은 않았던 기억이 있어서 저희를 관심하게 했고,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것을 선택했지만, 동기나 나지 않아서 저희를 찾거나 아니면 다른 전공을 좀 알아볼까 고민도 많이 할 것 같아서, 그것을 예방하고자 사전에 멘토링단에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멘토링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연구참여자H	7	2022.6.26
	자신의 이상과 고민을 공유하고 유사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7	A 멘토링단 멘토들의 유대감에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침	우리는 고등학교를 같이 졸업해서 그런지, 끈끈함, 가족 같은 느낌이 있지. 그래서 공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기억이라든지, 유대감이 훨씬 진짜 큰 것 같아. 계속 보고, 앞으로 계속 볼 거고, 그게 가장 큰 우리 단체의 특징인 것 같아.	연구참여자D	11	2022.6.4
		24	A 멘토링단 멘토들의 유대감에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침	독특한 특징이라고 하면 졸업생들이 이르는 단체라는 거예요. ... (중략) ... 다른 그룹과는 다르게 좀 더 서로 정기고 어울려 가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연구참여자C	8	2022.6.26
		31	나이대와 지역 기반 커뮤니티에 고등학교 동문이라는 점이 반영이 됨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깐 그런 것도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생활 방식이 그렇게 막 다를 거 같아. 뭐지? 그렇지 않아요. 비슷한 문화에 살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고. ... (중략) ... 우리 단체만의 특색이 있다면, 지역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티고, 저한테서 약간 공감대 형성의 점, 상대적으로 나이대가 비슷하다 보니깐, 친해지기 게 편하고 그나마 나이가 좀 더 많은 느낌이 강하지. 다른 모임들에 비해서.	연구참여자G	8	2022.6.26
결합기	자신의 이상과 고민을 공유하고 유사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58	여타 활동과 A 멘토링단의 차이점에 대해 말함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컴퓨터 분야라는 게 그렇게 인기 있는 과는 아니었어요. ... (중략) ... 그럼에도 컴퓨터 쪽 정보를 알고 싶어서 찾아온 친구들이 한 통째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당연히 그 친구들이 한 명 두 명이라고 해서 제가 야 합류자가 볼거 있어 하고 말을 해줄 수 없었어요. ... (중략) ... 단지 한 명이라고 그 사람이 필요할 정도를 최대한 이제 많이 알려주고 싶어서 이제 자료도 찾아보고 그거에 맞게 ppt도 준비해보고 이제 그 친구들한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런 쪽으로 이제 알아볼 수 있는 노트나 이런 걸 말해주려고 했었고. ... (하략)	연구참여자C	10	2022.6.26
		3	멘토링이 자기표현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함	내 이야기를 하는 거랑, 그냥 준비된 자료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랑 그 차이가 가장 컸던 것 같아. ... (중략) ... 그거 외에 학과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홍보사 활동하면서 우리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거나 하는 기회는 있었지만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 소개할 기회는 이 단체에서만 유일하게 할 수 있었어.	연구참여자D	5	2022.6.4
		30	같은 청년 시기의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받음	내가 20대들 거의 (이 단체와) 같이 보냈잖아. ... (중략) ... 이걸 하면서 이제 지금쯤에는 이런 고민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약간 이런 식으로 같이 사람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이나 아니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민할 수 있었어.	연구참여자G	7	2022.6.26
	자신의 이상과 고민을 공유하고 유사한 연령대의 청년들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능	43	같은 청년 시기의 고민을 공유함으로써 도움을 받음	우리가. ... (중략) ... 같은 생애주기이기 때문에 서로 도움을 많이 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회생활 이제 막 시작하거나 준비하는 단계에서 다 비슷하니까 년 차로서 어떻게 썼나, 좀 한번 회사 다해서 좀 봐 달라 이렇게 했던 것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 (중략) ... 이렇게 서로 도움을 줄 수가 있어.	연구참여자H	9	2022.6.26
		38	멘토링 장소 지원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디 요정을 할 공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 (중략) ... 그런 공간 대여를 좀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거를 사실이나 기관에서 제공을 해줄 수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것 같아요. ... (중략) ... 공간 공간 대여 뭐 이런 게 서울은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 (중략) ... 그런 게 뒷받침이 되었으면 좀 더 좋았을 거예요.	연구참여자H	6	2022.6.26
성숙기	사회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유인 기관과 인프라 및 소통 채널 확보	11	멘토링 장소 및 플랫폼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함	(조각) ... 오프라인으로 (활동) 할 때는 장소고, 온라인으로 할 때 이런 플랫폼이 없지. ... (중략) ... 내가 좀 더 가장 필요한 건 그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봐.	연구참여자E	6	2022.6.4
		37	학교와 교육 기관 연계를 통한 공신력 확보 지원	우리가 처음에 멘토링 할 때 다른 학교들이라든지 교육 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연계가 잘 되지 않았어요. ... (중략) ... 그걸 통해서 우리 멘토링이 좀 필요한 부분 영역과 연결이 될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공신력이나 신뢰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이 됐으면. ... (후략)	연구참여자H	6	2022.6.26
		32	지속적인 활동을 위한 지역 사회 홍보 지원 필요성	커넥트가 잘 되면 멘토링 기회가 많아질 텐데 그런 게 좀 부족하다? 어쨌든 우리가 아직까지도 발로 뛰어야하고 연락하고 이래야 했잖아. 꼭 K중학교나 K고등학교가 아니어도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과) 다른 지역에 홍보받거나. ... (후략)	연구참여자G	9	2022.6.26
	단체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내외부적인 어려움들 마주했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단체의 정체성 확립	52	학부모와 학교 요구와 조율과정을 통해 단체의 정체성성립함	멘토링에 대한 주제 같은 게 초반에는 아무래도 멘토링단의 내부적으로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아니면 어떤 주제로 멘토링을 이끌어가고 싶은 주제가 있는 반면, 학교에서나 선생님들이나 학부모님들이 멘토링단에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말인 애고, 공부 열심히 하라 이런 식으로 오히려 반감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이미 막고 교육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멘토링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약간 갈등이 있지 않아요. ... (하략)	연구참여자A	3	2022.6.29
		42	활동의 어려움 점을 단체 자체적인 제도와 활동을 통해 극복하고 노력함	우리들끼리는 좀 달리 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다보니까 멘토들 간에 원활한 통화가 나 교류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그래서 근처 사는 사람들은 자주 만났지만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 (하략)	연구참여자H	8	2022.6.26
		59	A 멘토링단 내부에서 새롭게 유입된 구성원을 위한 활동에 적극 기획 및 운영함	(조각) ... 컴팩스 안에서 위생에 맞는 여러 소모품들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들이랑 멘토들과 친목을 다질 수 있게 했던 게 국庫 방향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우리가 대학교 입학의 시점에 맞춰서 가지고 1년에 두 번씩은 꼭 반보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런 식으로 좀 소모품들 만들어서, MTL 아니면 꼭요즘 같은 날 된다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했었으니까. ... (중략)	연구참여자H	8	2022.6.26
	실천공동체로 지속되기 위해 요구되는 역량의 탐색 및 강화	13	단체의 지속을 위해서는 구성원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어려움이라는 범주에 넣을 수 있는 것이라면 단체 대표가 모든 점을 짚어주고 운영의 전적인 책임을 맡았던 거라고 보거든요.	연구참여자E	7	2022.6.4
		28	청년 단체 유지를 위한 급진적 지원 필요성	청년 정책이 좀 개편한데 비전을 좀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좀더거나 아니면 그런게 지금을 해준다면 이런 거는 많은데, 단체를 만들어서 꾸려나갈 수도 있는 그런게 없잖아 거의. ... (중략) ... 어쨌든 우리가 멘토링을 좀 하더라도 운영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 (하략)	연구참여자G	4	2022.6.26

